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5~8장)

김창세 선교사

목차

서론	5
칭의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롬 5:1)	6
칭의의 결과 (1):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 (5:1)	12
칭의의 결과 (2):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음 (5:2)	14
칭의의 결과 (3):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함 (5:2)	17
칭의의 결과 (4): 환난 중에 즐거워 함 (5:3-4)	20
칭의의 결과 (5): 소망의 확신을 가짐 (5:3-4)	23
칭의의 결과 (6):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한 완성된 소망을 이룸 (5:3-4)	26
칭의의 결과 (7):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을 주심 (5:5)	28
칭의의 결과 (8):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 (5:5-6)	30
칭의의 결과 (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 (5:8)	33
칭의의 결과 (10):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음 (5:9)	38
칭의의 결과 (11): 미래 구원을 받음 (5:10)	45
칭의의 결과 (12):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함 (5:11)	50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5:12-21)	53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5:12-21)	59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5:12-21)	63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5:12-21)	67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5:12-21)	71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6:1-14)	76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 (6:1-14)	80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 (6:1-14)	83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결과 (6:1-14)	8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6:15-18)	93
“그 마지막이 사망” (6:19-21)	98
“그 마지막은 영생” (6:19-21)	102

하나님의 은사 (6:23)	106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 (7:1-4)	111
율법에서 벗어난 자 (7:5-6)	115
“율법이 죄냐?” (7:7-9)	119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1) (7:8-13)	123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2) (7:8-13)	126
신령한 율법 (7:14-20)	128
“내 속에 거하는 죄” (7:17-20)	131
하나님의 법인 율법 (1) (7:21-23)	134
하나님의 법인 율법 (2) (7:24-25)	137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1) (8:1-4)	140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2) (8:1-4)	144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3) (8:1-4)	147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4) (8:1-4)	150
성령의 생각 (8:5-8)	154
육신의 생각 (8:5-8)	159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8:9-11)	166
우리가 빛진 자들 (8:12-13)	170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1) (8:14-17)	174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2) (8:14-17)	177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3) (8:14-17)	180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8:14-17)	184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8:18)	188
“피조물의 고대” (8:19-22)	193
우리의 소망 (8:23-25)	197
성령님의 도우심 (8:26-27)	201
구원의 확신 (8:28-29)	204
하나님의 구원 (1) (8:29-30)	208
하나님의 구원 (2) (8:29-30)	212
하나님의 구원 (3) (8:29-30)	215
하나님의 구원 (4) (8:29-30)	218
하나님의 구원 (5) (8:29-30)	222
하나님의 구원 (6) (8:29-30)	227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1) (8:31-34)	231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2) (8:31-34)	240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3) (8:31-34)	245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4) (8:31-34)	248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5) (8:31-34)	252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6) (8:31-34)	257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7) (8:31-34)	261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8) (8:31-34)	264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9) (8:35-39)	269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10) (8:35-39)	272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11) (8:35-39)	275

결론	276
-----------	-----

부록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롬 3:23-24)	278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롬 4:17-25)	282
선교하는 승리장로교회 (롬 1:14-17)	286

서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이시자 저희 승리장로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세 선교사님과 식탁 교제를 나눈 후 집에 모셔다 드렸을 때 제 차에서 내리시기 전에 ‘복음이란 무엇일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저는 좀 의아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평생 복음을 들으셨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셨을 텐데 진정으로 복음을 더욱더 알고 싶어 하시는 아버님의 마음을 좀 엿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교지에 가실 수 없으신 상황에서 매주 수요기도회 때마다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 선포하신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부족하나마 제가 노트를 적고 이렇게 말씀 목상의 글로 정리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5~8장)”이라 정했습니다[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사복음서(마태/마가/누가/요한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선포가 끝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복음서)”라는 제목 아래 원로 목사가 두 번째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 책을 사용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길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길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22년 2월, 승리장로교회 목양실에서)

칭의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로마서 5장 1절).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5:1). 이 말씀은 칭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으로도 의롭다하심(칭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선행으로, 착한 일로,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칭의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자랑하지 못합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6-30절을 보십시오: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나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비록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관계가 있습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므로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31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faith)으로만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행위 등)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게(faithfully) 율법(예: 십계명)을 사랑하고 준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중계명(하나님을 사랑하라 & 이웃을 사랑하라)을 순종해야 합니다(이것은 중생한 증거임).

성경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접속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 이전에 이미 말한 내용과 5장 1절부터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앞으로 5장 1절 이전 어디부터 바울이 말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주장(혹은 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장 15절부터 연결해 준다는 설도 있고, 4장 전체부터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3장 21절부터 또는 1장 18절부터 연결해 준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5:1)는 뒤로 어디까지 바울이 말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5장 11절까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란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를 가리킵니다. 적용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절).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여기시고 또한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아무 근거 없이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아무 근거 없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가 없으시고 그렇게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방법/방편/수단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1절),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믿음”이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관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5-6절을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현대인의 성경)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네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 약해져서 하나님께 저에게는 자식이 없으므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2절)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약속)하셨습니다(5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2절)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4절)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롬4:3).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3절). 그런데 성경 로마서 4장 16절부터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믿음의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5-6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서 거의 10년 후인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으니까 로마서 4장 1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으니까 24년 즈음 후였을 때입니다. 성경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으니까 그 때부터 로마서 4장 16절의 아브라함은 한 14년 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나이 99세 때(롬4:16이하)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이가 없었고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나이였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현대인의 성경)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백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의 아내인 사라의 나이 89세였기에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음에 있어서는 자기나 사라나 마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18절, 창15:5 인용), 특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하신 말씀(창15:4)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롬4:18). 성경 로마서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약속”이란 단어(16, 20, 21절)와 “말씀”[17절(“기록된 바”, 18절)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은 바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18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될 때 까지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18절)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19절)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17절)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17절).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18절).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9-20절을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습니다(20절). 성경 로마서 4장 21절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3-25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쫓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24절).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내증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25절). 우리는 다 죄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죽으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울지라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생명)로 죄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편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25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참고: 5:1).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목적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자 임을 믿습니다. 과연 믿습니까??

우리가 약 2주전 주일에 받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신사에다가 절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에게 절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고 순교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수가 적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합쳐서 80여명 되는데 앞으로 장차 환난과 핍박이 오면 적어도 10명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명도 가능할지 ... 나 자신을 뒤돌아 볼 때에도 과연 순교할 수 있을지...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과연 지금 우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 자기 몸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자기의 아내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고 있습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

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확증해야 합니다. 환난이 와도 좋다고 하는 믿음, 핍박이 와도 좋다고 하는 믿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잘 준비해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길 기원합니다.

칭의의 결과 (1):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로마서 5장 1절).

성경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1절).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1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10절)(과거형).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6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8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사(8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므로(9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10절)[칭의의 방법/수단/방도: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5:1)].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고후5:18).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야 합니다(롬5:1)(현재형).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10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8:16)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은(15절)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 중보자이신(딤후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롬5:1).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과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야 합니다(현재).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평을 ‘즐긴다’는 말도 됩니다[참고: (롬5: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11)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므로 깊은 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행16:24-25).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마음에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맘이 편안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새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1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4절과 후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님의 이종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종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됩니다(요일2:5). 이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속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거리낄 만한 것이 없음(현대인의 성경)](10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막16:19; 히8:1; 10:12)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롬8:34)이요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히12:2, 현대인의 성경).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 합니다(롬5:1).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맛보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칭의의 결과 (2):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로마서 5장 2절).

칭의의 근거는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롬5:1). 칭의의 방법은 “믿음으로”입니다(1절). 칭의의 결과는, 첫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칭의)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입니다(1절). 예를 들어, 모태신앙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찬양 경배를 드리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한번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서 죄책이 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무서워지고 싫어졌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녀에게는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칭의의 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죄에서 자유, 기쁨, 화평, 사랑, 섬김 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것 생각하니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가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간절히 매일 기도합니다. 자기도 아프니까 활동을 못하니까 기도합니다. 이 칭의의 결과(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칭의의 두 번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롭다하심을 받은(칭의)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2절). 여기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2절)에서 “그”는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2절)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 사도 바울과 로마 교

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2절)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본에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믿음”이란 단어가 있는 사본을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예를 들어 죄인인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무조건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들어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은혜에 들어간다’는 말은 은혜의 장소, 은혜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장소/영역은 어디입니까? 구약의 성전 제도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휘장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져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율법 두개 돌판,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만나)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속죄의 피를 거기에다가 뿌립니다.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지성소는 환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칭의의 열매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2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바로 “그로 말미암아”(2절),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1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칭의의 큰 복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2절에 “서 있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칭의의 근거) 믿음으로(칭의의 방법)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므로(칭의의 결과 #1)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장소/영역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칭의의 결과 #2).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피(생명) 흘려 죽으시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고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특권을 받았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5-1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임니다(히4:16).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마태복음 27장 50-51절에 기록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 이 성소 휘장으로 인해 지성소에 못 들어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9-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 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으신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담대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자리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칭의의 결과 (3):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함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로마서 5장 2절).

성경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칭의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이미(Already)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3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3: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5:1-2).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10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1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1, 2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굳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2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자랑하며) 즐거워합니다(2절). 이미 나타난 이 세 가지 영광은 100%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100% 온전한 영광을 다 나타내시면 우리는 그 온전한 영광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장차(Not yet)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한 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하

나님의 영광은 100% 온전하고 영원한 영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고전13:12).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자녀의 영광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3가지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족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는 족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5:1-2, 참고: 8:18).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타나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요일3:2,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빌3:2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살전4:14-17).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소망은 100% 확실한 소망입니다(롬5:2).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하셨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임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0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라는 동사는 과거사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5-6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현대인의 성경)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동사는 다 과거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함께 승천했으며 또한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0절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란 동사나 에베소서 2장 5-6절에서 “...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동사들은 다 과거사입니다. 과거사가 쓰인 이유는 100%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기에 100% 확실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롬5:2). 이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이요, 참 즐거움이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이런 소망 속에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2절).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

칭의의 결과 (4): 환난 중에 즐거워 함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로마서 5장 3-4절).

여기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3절)란 말씀에서 “이뿐”이란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영광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속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사 자신의 생명(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시사 우리를 속량하시어 우리를 죄와 사탄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구속은 구원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면 “(다) 이루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써 한국 성경에는 “이루었도다”라고 번역돼있지만 원래는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구속으로 시작하여 구원의 완성까지를 총체적으로 일컫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1절)께서 다 이루신 것을 가리킵니다(계21:6). 다 이루신 것이란 구속(요19:30)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계21:6).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확신해야 합니다(롬5:2). 그리할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할 수가 있습니다(3절).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영광은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때에 이미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광은 비록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 썩어지지만 영혼은 하늘나라로 갔다고 주님의 재림 때 같이 옵니다(살전 4:14). 그 때에 우리의 썩어진 몸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요(고전 15:50-53)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될 것입니다(빌 3:21, 현대인의 성경). 그 때에 살아남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광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고전 15:50)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되어(빌 3:21) 먼저 부활하여(살전 4:16, 현대인의 성경)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고전 15:50)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살전 4:17). 그 때에 이미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그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빌 3:21)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살전 4:17). 이것을 바라는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은 100% 확실한 소망이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소망하고) 즐거워합니다(롬 5:2).

성경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고난”]이란 불신자들이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십시오: “...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을 당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당함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1-12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 더욱더 소망이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믿음이 견고케 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롬 8:18).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은 은혜로 여기면서(빌 1:29)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롬 12:12).

사도 바울은 전도/선교로 인한 환난/고난이 많았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27절을 보십시오: “...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

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경 사도행전 20장 22-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21:13). 그 이유는 그에게는 주님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환난/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상급은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성경 다니엘 12장 3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경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북한과 C 나라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환난/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없어서 환난 중에 기쁨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더 편해지려고 하니 환난/고난 중에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교회적으로도 편안하기에 ...). 온 땅에 미칠 재난, 환난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도/선교를 위해 환난/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기쁨을 맛보고 누려야 합니다. 환난/고난을 잘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칭의의 결과 (5): 소망의 확신을 가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로마서 5장 3-4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인해 환난을 당할 때에도(물론 환난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계3:7-13)처럼 환난의 도가니인데도 불구하고(9-10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8절). 우리는 환난 때에 믿음(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택한 자라도 미혹하고 넘어트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받는 것은 우리의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적자들로 인해 핍박과 환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이기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롬5:3).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에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

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빌1:29).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마5:11-12).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실할 때 우리는 환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환난을 당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참고: 고후 11:23-27). 성령님께서서는 바울에게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행20:23, 21:11). 그것을 알고서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결박과 환난을 당할 줄을 알면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순교도 각오하고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20:24). 그리고 그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므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했습니다(빌1:18).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환난 중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롬5:10), 바울의 경우는 죄인 중에 괴수(딤후1:15),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진바 되었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 받았기에(고후 5:18-19)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한한 영광인 줄 알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의 경우는 설교를 한 후에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므로 변화하는 모습을 엿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과 동역자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살전1:6, 7).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10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도의 기쁨과 전도

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난 중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칭의의 결과 (6):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한 완성된 소망을 이룸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로마서 5장 3-4절).

성경 로마서 5장 3절은 “이는 환난은 인내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롬5:3). 성경에는 “인내”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기도의 인내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인내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겻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마26:36-42).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일곱 마디 중 여섯 번째 말씀인 “다 이루었다”는 말씀(요19:30)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끝까지 고난을 인내하시사 다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 로마서 5장 4절은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3절),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4절). 여기서 “연단”이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불(the furnace of affliction)로 연단하심을 말합니다(사48:10).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고난의 용광로로 우리를 단련하시사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므로 순금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십니다(욥23:10).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란 고난의 용광로를 사용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그 인내로 하여금 연단을 이루십니다. 또한 성경 로마서 5장 4절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2절)은 초신자들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

을 통과한 완성된 소망이 있습니다(3-4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3절).

분명히 대환난이 옵니다! 그 때에 성령님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심비에 깊이 적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견고한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므로(살전2:13) 우리의 심령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대환난에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칭의의 결과 (7):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을 주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로마서 5장 5절).

성경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5:5). 여기서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소망하고)에서 시작해서(2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3절)을 이루는 소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은 초신자들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하는 소망은 소망 중의 소망이요 소망의 완성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희미해지므로 우리를 낙심시키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이루어져도 이러한 세상적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 로마서 5장 2-4절의 소망은 영광스러운 소망이기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자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고후1:22).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입니다(롬5:5).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습니다(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합니다(2절).

성경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 누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성령님을 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관계)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4:16, 18).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8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8:32).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택한 백성들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100%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장차 올 마지막 대환난 때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믿고 환난을 견뎌내며 극복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칭의의 결과 (8):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로마서 5장 5-6절).

성경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한국 성경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시작하지만 원어 헬라어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란 앞 구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라고 한 말씀과 연결해서(이어서) 한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말한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6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연약할 때, 아주 작은 것을 할 수 없는 매우 연약할 때를 말합니다. 그 과거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이요(1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던 때이며(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지 못했을 때이며(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소망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을 때이며(2절),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지 못했을 때이며(3절)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기 전입니다(5절). 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기약대로”라는 말씀은 적절한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하셨고 그 정한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정한 때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6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5절).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시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여인에게서 나게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경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1:18). 불경건한 자들은 진리를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위하여”라고 로마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하여”와 “대신하여”(고후 5:14, 15, 21)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 15, 2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위하여”란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대신해서는 죽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하여”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고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롭다하시고 등등 하신 것입니다. “위하여” 죽는 것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만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행7:60).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15:20).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롬5:6)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죽음 같이, 아니 죽음 보다 강한 사랑입니다(아8:6-7). 이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들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롬5:1).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1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습니다(2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2절).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3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습니다(5절).

칭의의 결과 (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 5장 8절).

성경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때”란 과거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입니다(1절).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9절). 그리고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는 불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를 들어,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였습니다(창2:17).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원죄)입니다.

둘째로, 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3 가지 비유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봅시다:

(1) 열 처녀 비유 (마 25:1-13):

이 비유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므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들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범한 죄는 그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준비하지) 않았습니다(3절). 그 결과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등과 더불어 기름도 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8-9절)은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10절). 그 후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부르짖었지만 신랑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노라)고 말했습니다(11-12절). 이 비유에서 주님의 명령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입니다(13절). 만일 지금 우리가 이 명령을 어기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달란트 비유 (마25:14-30):

이 비유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므로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18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범한 죄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한 달란트)를 감추어 둔 것입니다(18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가 범한 죄를 다섯 달란트 받은 자(16, 20-21절)나 두 달란트 받은 자(17, 22-23절)처럼 착하고 충성되지 못하되 그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21, 23절). 한 마디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26절). 그는 게을러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로 일을 해서 또 다른 한 달란트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의 명령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로 적은 일에 충성하여 열매를 맺으라 입니다(21, 23절).

(3) 양과 염소의 비유 (마 25:31-46):

이 비유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므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염소”입니다(32, 33절). 여기서 “염소”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41절). 이 “저주를 받은 자들”(“염소”)가 범한 죄는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자(31절)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 하였습니다(42-43절). 이 비유에서 주님의 명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인자(31절)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습니다(35-36절). 이 “의인들”(37절)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요(34절)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34절).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했다와 안했다’입니다. 즉,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한 자들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자들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한 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고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셋째로, 죄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선한 일도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 주님의 일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1-23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믿음 없이 말로만 “주여 주여” (또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은 죄입니다. 믿음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고, 믿음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낼 수 있으며 또한 믿음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 말씀하십니다(23절). 전능하신 주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넷째로, 죄는 믿음으로 하지만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순종이 부족한 것입니다.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요리 문답 “문14”는 이렇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답은 이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요일3:4; 약4:17; 롬3:23; 약2:10).” 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현대인의 성경)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이 4가지 죄[(1) 법을 어기는 것, (2)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3)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4) 순종이 부족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하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5:12). 비록 천사의 세계에는 타락한 천사가 있었지만 인간 세계에는 죄가 없었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12절). 모든 사람이 법을 어기고,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이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12절).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혼의 죽음(영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창3:9-24). 그러다가 그는 930세에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5:5). 아담이 죽었을 때 그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영원한 지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의 썩어진 몸과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합하여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롬5:12) 우리도 죄인이 되었고(8절)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9절). 그러므로 우리도 원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첫 번째 아담처럼 영혼의 죽음(영적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15절) 또는 “마지막 아담”(고전15:45)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롬5:8). 예수 그

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원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8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사 죄를 미워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 찬양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새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1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2절) 멸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3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맘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4절)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에는 영광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후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새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입니다: (1절)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오네 근심걱정 물러가고 기쁨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오네, (2절)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3절)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 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4절)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 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후렴)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지금 이 위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비취므로 근심 걱정 어둠 슬픔 두려움 등 다 물러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비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칭의의 결과 (10): 진노하심에게 구원을 받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과 1절(“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입니다: (1) 비슷한 점: 같은 “우리가”입니다(1, 9절). 여기서 “우리”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8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10절)였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우리”입니다. 과거의 “우리”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의 우리로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가리킵니다. 같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입니다(1, 9절). (2) 다른 점: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9절에서는 우리가 “그(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가리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요1:29).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유월절 어린양(대하35:1, 6)의 피로서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 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출12:21)는 말씀이 가리키고 이는 참되신 유월절 어린양이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이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의 피입니다(요일2:2). 즉,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롬5:8)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10절).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보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만족케 하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피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피입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의 피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치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여기서 “피”란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롬5:9)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6:2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9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1절, 현대인의 성경, 참고: 10-11절). 이제(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갈4:6, 새번역, 참고: 롬8:15).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요, 능력이 있는 피요,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피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현대인의 성경)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으며(마1:18, 20),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33년 동안 늘 함께 하셨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힘/능력/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해방케 하셨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롬5:1, 9).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1절).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습니다(2절). 이 피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2절).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3절). 예를 들어, 옴기에 나오는 옴은 재난/환난 중에서 오히려 땅에 엎으려 예배하

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롬1:20-21). 이 피로 말미암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으로 이루고 있습니다(롬5:4).

성경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관한 내용이 약 20개 이상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합치면 한 58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진노”란 단어는 로마서에 두 개가 나옵니다: (1) 하나는, ‘잔잔한 진노’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내리셨고, 지금 현재에도 내리고 계시며, 장차 앞으로도 내리실 진노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2) 또 하나는, ‘최후의 진노’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후의 심판 때에 내리실 진노를 말합니다. 성경 로마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성경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노하심”은 로마서 1장 18절의 진노가 아니라 로마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후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성경 로마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이란 최후의 심판의 날로서 그 최후의 심판이란 백보좌 심판을 가리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가 심판하십니까? 최후의 심판의 심판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죽은 자들”(12절), 곧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주님께서 기록한 책들을 보시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 책들 중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책이 있습니다. 마치 자서전처럼 그 책에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곧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를 죽을 때까지 찬양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행한 것,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 앞으로 죽을 때까지 행할 수 있는 것은 죄 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최후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한 우리를 최후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롬5:9). 전에는 우리가 그 책들(계20:12)에 기록되었으므로,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었으므로 영원히 불 못에 던져진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15절).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른 책인 생명책(12절) 즉,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므로(21:27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10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11절)에 들어갈 것입니다(26, 27절).

성경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롬 5:9)이란 단어가 로마서에 명사로 5번 그리고 동사로 8번 나옵니다. 명사로 쓰인 예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동사로 8번 나온 것을 보면 과거형으로 1번, 미래형으로 7번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구원이란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로 쓰인 과거형 “구원”은 로마서에 딱 1번 나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미래 구원이란 장차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 미래형 “구원”은 로마서에 7번 나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구원”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미래의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최후의 진노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9절)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란 과거, 현재, 미래형입니다.

(1) 과거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2-13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구원)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원은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칭의)(롬5:9).

(2) 현재의 구원:

성경은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빌2:12). 구원은 사람들이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 요나 2장 9절을 보십시오: “...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현대인의 성경)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시는) 것이지 죄인 된 우리 인간이 노력(선행)을 하므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일까요? (빌2:12)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은 히브리어 “예수아”란 말로서 이는 죄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구출해 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구원”이란 헬라어의 “소테리아”란 말인데, 이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형벌(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와 죄 된 생활에서부터 구출하여 영원한 천국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인터넷). 성경 로마서 5장 6, 8,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로마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helpless)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구원이란 전적으로 무기력(helpless) 하고 경건하지 않는(ungodly)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사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건져내시사 우리를 경건한 자(godly)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구원이란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므로 우리를 의롭다하신 것입니다(9절). 이 말은 구원이란 헬라어 “구원”이란 단어의 의미처럼 우리를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와 죄 된 생활에서부터 구출하셨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를 의롭다하셨다는 사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구원이란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현재형 구원, 즉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빌2:12)는 말씀은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구원을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구절들을 볼 때 구원이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재림)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사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도 성경 요한일서 5장 12-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형 구원이나 미래형 구원이나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할 때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답게 사십시오’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사십시오’입니다.

(3) 미래의 구원: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성경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두 성경구절을 보면 주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래형 구원을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재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롬8:30)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사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미래 구원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롬5:9). 즉, 미래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래의 구원은(과거 구원에 근거해서라도) 더욱 확실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미리 정하신 그들”이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가리킵니다(엡1:4). “또한 부르시고”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

스도의 피(생명)로 사랑해서 선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란 앞으로 장차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진노에서 구원하실 미래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한 그 이유는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5-6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중생, 부활을 가리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란 승천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생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롬5:9).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10절)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1절).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감을 얻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얻었습니다(2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2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3절). 그 이유는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3-4절). 우리는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히9:14).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새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3절). 섬기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 사랑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시23:4)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의 진노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고 장차 구원을 받을 자들로서 현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요 또한 장차 구원의 완성 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천국 백성들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삶이란 예수님의 이종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39절을 보십시오.

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1) 과거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롬 5:5). (2) 미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천국의 법인 예수님의 이종계명을 온전히 순종케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3) 현재 사랑입니다: 그 종말론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사 지금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고 계시고(갈5:22)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종 계명을 순종케 하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16절). 즉,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하며(18절)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해야 합니다(25절). 그리할 때 우리 마음이 천국화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화 되며, 우리 교회가 천국화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열방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기에 처해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칭의의 결과 (11): 미래 구원을 받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로마서 5장 10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5:10).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도 만드신 후 아담에게 에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2:16-17). 그러나 아담은 간교한 뱀(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마땅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이었고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8)]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으므로(롬5:5)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능케 하셨습니까?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탄생 또는 강생하셨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빌2:6-7).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요일4:9) 이 세상에 탄생/강생하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아끼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습니다(8:32).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바 되셨습니다(롬8:32). 죽으실 수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빌2:6-7).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8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원수이기에 우리가 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엡2:16).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골1:20).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롬 5:10).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화목케 하시되 단번에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가능케 하셨습니다(히10:10).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롬6:10)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5:10). 성경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참고: 롬3:25). 여기서 “화목 제물”(propitiation)이란 단어는 “만족”(satisfaction)이란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 제물로 받쳐져 죽으시므로 죄를 형벌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만족케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맥아더). 사도 요한은 성경 요한일서 2장 2절뿐만 아니라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성경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화목은 결코 깨질 수가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과 사귄 또는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고후5:18).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19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해야 합니다(20절).

성경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롬5:10)에서 “그의 살아나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고전15:3-4).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행 9장). 이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재림). 그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롬5:10). 여기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고전15:42-44) 그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51절),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가리킵니다(빌3:20-21).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살전4:17).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계 19:9).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

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롬5:10). 여기서 “더욱”이란 ‘반드시’를 강조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반드시 장차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사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은 100% 확실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죽은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며 그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2-58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58절).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은화 므나 비유”(눅19:11-27)를 보면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긴 사람과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남긴 사람은 주인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각각 “열 고을 권세”와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는 상급을 받습니다. “므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화폐로서 한 므나는 노동자의 3개월 품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내린 상급은 비교도 안 되는 상급인 각각 열 고을과 다섯 고을이었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서 서서 결산할 때에(마25:19)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칭의의 결과 (12):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함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로마서 5장 11절).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5장 2절에서 “...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3절에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또 다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3: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5:1-2).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10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1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1, 2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굳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2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자랑하며) 즐거워합니다(2절). 이미 나타난 이 세 가지 영광은 100%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100% 온전한 영광을 다 나타내시면 우리는 그 온전한 영광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한 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100% 온전하고 영원한 영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고전13:12).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자녀의 영광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3가지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족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는 족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5:1-2, 참고: 8:18).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타나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요일3:2,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빌3:2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살전4:14-1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롬5:11).

우리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십니다(시43:4). 극락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입니다. 우리가 제일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10절)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야 말로 변하지 않는 기쁨이요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모든 상황을 초월한 기쁨으로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했습니다(빌1:18).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으며 죄악 된 일과 고통, 괴로움, 질병, 굶주림 등 죽을 일이 쌓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극락의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소유하면서 누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된 사람들로써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새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입니다:

(1절)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2절)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으므로 힘써서 전하세
(3절)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후렴)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21절]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로마서 5장 12-21절에서 원어 헬라어로 보면 “한 사람”이란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한국어로는 10번 나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두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5,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한 사람”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하고, 두 번째 “한 사람”(15절) 또는 “한 분”(1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범죄”한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류의 시조인 첫 사람 아담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성경 고린도후서 15장 4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담을 가리켜 “첫 사람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한 사람” 또는 “한 분”(롬5:15, 17)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후15:45).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삼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고, 만일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축복(영생)을 받지

만 만일 불순종하면 저주(사망)를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입니다(창2:17). “한 사람”(롬5:12)인 인류의 시조요 인류의 대표인 “첫 사람 아담”(고후 15:45)은 언약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21절에서 “죄”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죄는 불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2) 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3) 죄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4) 죄는 믿음으로 하지만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순종이 부족한 것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요리 문답 “문14를 보면 ”죄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요일3:4; 약4:17; 롬3:23; 약2:10)“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란 인류의 시조요 인류의 대표인 첫 사람 아담의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 아담의 범죄를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란 아담의 범죄요 그 범죄는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창2:17)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책임을 지지 않고 행해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17절)는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행위 언약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비록 천사의 (영적) 세계에서는 죄가 있었지만].

왜 한 사람인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천사의 (영적) 세계에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인류의 최초의 여자(창3:1)인 하와에게 보내서 유혹을 했기 때문입니다(1-5절). 그 여자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2:17)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므로[비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2:16)]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창3:6).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롬 5:12).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12절). 여기서 “사망”이란 3가지 죽음을 말씀합니다: (1) 영적 죽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혼의 죽음(영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창3:9-24). (2) 육체적 죽음: 그러다가 아담은 930세에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5:5). (3) 영원한 죽음: 아담이 죽었을 때 그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영원한 지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의 썩어진 몸과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합하여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현대인의 성경)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3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 “죽은 자들”[“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 (2) “자기의 죽은 자들”[죽은 사람]: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 (3) “너”: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산 사람들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이들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롬5:12). 이 말씀의 이미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관하여 여러 해석이 있지만 100% 맞는 해석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해석은 첫 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

로서 그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아담에 속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은 각자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각 종목에서 시합을 해서 이기면 메달이 주어지는데 그 때에 금메달 딴 선수가 대표하는 나라의 국기와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 때에 그 장면을 보는 그 선수가 대표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기뻐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을 불순종하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을 죄를 지었습니다(롬 5:12).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죄”란 자범죄로서 본인들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자범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가 그에게 속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3, 4항을 보십시오: (3항) “그들은 인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죄책과(창 1:27-28; 2:16-17) 죄로 인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이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시51:5; 창 5:3; 욥 14:4, 15:14). (4항) 이런 원초적 부패로 인해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선을 거부하며(롬 5:6, 8:7, 7:18; 골 1:21), 오로지 악을 행하려는 성향에 사로잡혀(창 6:5, 8:21; 롬 3:10-12) 실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약 1:14-15; 엡 2:2-3; 마15:9).” “어째서 아담의 범죄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에게 전가된 것은 무엇일까요?”

(1) “아담으로부터 죄책과 부패한 본성이 전가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3항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작인 근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와 부패한 본성이 출생을 통해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작이면서 또한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의 영향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대표성 원리”).

(2)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 그 자체가 아니라, 죄에 대한 부패한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선을 거부하며, 오로지 악을 행하려는 성향을 물려받아 실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우리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최악 되고 부패한 본성인 것입니다”(인터넷).

결국 사망에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롬5:12). 인류의 대표인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엡2:1).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혼의 죽음(영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담처럼 육체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썩어진 몸과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합하여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 곧 불 못”이라고 합니다(계20:14). 성경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롬5:12)인 “첫 사람 아담”(고전15:45)이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므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므로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도 죽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여(롬5:12) 꺼지지 않는 불 못인 지옥에서(막9:48) 죽을 수도 없이 영원히 살 수 밖에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엡2:1).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롬5:15) “마지막 아담”(고전15:45)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므로 말미암아(빌2:6-7)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인 사망을 돌이켜 우리에게 축복인 영생을 주셨습니다(신23:5; 느13:2).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롬5:17)의 은혜로 말미암아(1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6:23, 현대인의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23절, 5:15, 17). 그 이유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엡2:4-5, 현대인의 성경)[아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음(창3:21)]. 에베소서 2장 8-10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새 찬송가 304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로마서 5장 12-21절]

성경 로마서 5장 13-14절을 보십시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성경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3절). 여기서 “율법 있기 전”이란 말씀에서 “율법”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출20:1-17; 참고: 신5:6-21). 그러면 “율법 있기 전”이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 하나면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창3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출20장) 전까지를 가리킵니다 (약 2,500년임). 이때에도 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부터 출애굽기 20장전까지 성경에는 죄가 많이 기록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의 말아들인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죄를 보십시오(창4장). 사람이 땅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6:1)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5절). 이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하여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11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6-8장). 또 다른 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악하여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18:20,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때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전인 창세기 3장부터 출애굽기 20장전까지 약 2500년 동안 사람들을 죄를 많이 범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죄로 분명히 알지 못했고, 죄 값이 그리 중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심상히 여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

나 “율법”은 죄를 알려줍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인터넷): (1) 죄를 깨닫게 하여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용도, (2) 형벌의 두려움으로 죄를 억제하는 용도, (3) 신자들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용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를 알고, 죄의 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리를 죄를 알지 못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짓는 죄보다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워 죄를 이기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9, 11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께 범 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1, 13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입니다(14절). 우리는 진리를 알아 가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2500년 동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담의 범죄란 언약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창2:17)을 어긴 불순종의 범죄(3:6)로서 불법이었습니다(요일3:4). 이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불순종으로 파괴한 죄로서 아담만이 범한 죄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세까지 사람들이 범한 모든 죄들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가 아닙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파괴한 아담이 범한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아담 이후로 모세까지 사람들이 범한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를 그 모든 사람들이 범한 것입니다(롬5:12). 심지어 유아들은 어떤 법도 어길 수 없는 상태로서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2절). 여기서 “모든 사람”에는 어떤 법도 어길 수 없는 상태의 유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아들도 죄를 지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전가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하므로 그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악은 유전을 통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책만 전가를 통해 우리 것이 될 뿐 아니라 그 본성의 타락과 부패도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원죄). 성경 시편 51편 5절을 보십시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 나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3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이었으므로, 그 들로부터 일반적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죄의 죄책이 전가(轉嫁)되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성이 전달되었다”(인터넷).

성경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 왕 노릇했다는 말씀은 “한 사람”(12절) “아담의 범죄”(14절)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말입니다(12절).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사망에 굴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록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조부인 므두셀라도 969세를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도 죽었습니다(창5:21). 기원전 230년에서 기원전 221년까지 중국 최초의 황제였던 진시황은 중국최초의 통일된 제국을 건설하였고, 불로불사약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여 구하려고 했지만 불로불사약인 줄 알고 먹었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단축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불로불사의 꿈도 수포로 돌아가 그 또한 죽었습니다(인터넷).

성경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실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 아담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이란 같은 모양인데 다릅니다. 즉, 첫째 아담과 둘째 또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그리스도는 같으면서도 같지 않고 다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14절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1) 같은 것은 대표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입니다. 아담은 옛 언약의 대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표입니다. 또 하나 같은 것은 전가입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2) 다른 것은 왕 노릇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 노릇하였지만(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18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17절). 율법이 있기 전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창5:24)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히11:5). 율법이 있는 후에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왕하2:1-1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 은사”요(롬5:15) “이 선물”입니다(16절).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인들인데 예

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15절)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6:23).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새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입니다: (1절)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절)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3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4절) 예수가 계시는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 하도다, (후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원하네. 성경 빌립보서 3장 7-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므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여 찬양 경배하십시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로마서 5장 12-21절]

성경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인류의 대표인 첫째 아담은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기 “모형”이란 헬라어 단어가 신약에 16번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 성경으로 다 “모형”이라고 번역된 것은 아닙니다. “본”으로 번역이 제일 많이 되었는데 16번 중에 거의 반이 “본”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예: 롬6:17), “자국”으로도 2번 번역이 되었습니다(요20:25). 또한 “형상”, “양식”, “같이”(창23:25), “거울”, “본보기”(고전10:6), “그림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가지 물건이 있다고 하십시오. 한 물건을 “A”라고 하고 다른 물건을 “B”라고 합시다. A가 B를 표시해 줍니다. 이것을 가리켜 모형이라고 합니다. A는 모형이고 B는 그 반대되는 형입니다.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란 말씀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상징한다는 말로서 닮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닮은 점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라는 것이고, 다른 점은 전가입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넘겨 준 것은 죄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넘겨주신 것은 의(righteousness)요 그의 의 결과는 영생(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5-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이 은사”(15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또는 “선물”)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또는 원죄)와 성격만 다른 게 아니라 결과도 다릅니다.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에서 죽음의 3단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영적으로 죽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참고: 롬5:12). (2) 육체적인 죽음: 아담은 930세에 육체적으로도 죽었습니다. (3) 영원한 죽음: 영적으로 죽은 이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는 영원히 죽어 지옥 불구덩이에 거합니다[“둘째 사망”(계2:11, 20:6, 14, 21:8)]. 이렇게 아담 안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엡2:1).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1절, 현대인의 성경)의 상태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음(현대인의 성경)](2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3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선물)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롬5:15). 여기서 “은사” 또는 “선물”이란 영생(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시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6절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인 “…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와 비교해 보십시오. 모형인 아담의 범죄와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사의 성격과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다릅시다)(15절). 로마서 5장 16절을 다시 보면 성경은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 한 사람(아담)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인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셨으므로 우리 모두는 죄의 형벌인 사망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죄에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에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6절). 여기서 “많은 범죄”란 무엇입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원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사람이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를 가리킵니다. (2) 유전죄: 자신의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죄를 가리킵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됩니다. 성경 시편 51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현대인의 성경)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뱀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3) 자범죄: 우리 자신이 살면서 짓는 죄(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 등으로 짓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새 찬송가 274장, 1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 또는 선물이란 우리가 이 많은 죄악 중에서 정죄를 받아 죄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원죄, 유전 죄, 자범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를 이 정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이르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시조로써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을 주었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 밖에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사/선물을 주시되 우리는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 33-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경 로마서 5장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15절) 즉 영생(영원한 생명)(6:23)을 받기 전에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담을 통하여 왕 노릇 했었습니다(5:17). 사망(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왕 노릇했기에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받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16절) 우리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얻은 자들로서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17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그 영생이 이미 우리 삶 속에 왕 노릇하고 있기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걱정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받았고(15절).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고(16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기에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입니다(계22:5).

혹여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모시고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로마서 5장 12-21절]

성경 로마서 5장 12-19절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면과 다른 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14절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면, 15-17절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면, 그리고 18-19절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면과 다른 면. 성경 로마서 5장 18-1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그런즉”(18절)이란 접속사는 로마서 5장 12-17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1) 행동이 다릅니다.

아담의 행동을 보십시오. 성경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범죄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을 가리킵니다(19절). 아담의 범죄, 즉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은 많이 있지만 성경 로마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담의 “한 범죄”는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을 가리킵니다(3:6).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십시오. 성경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 “한 의로운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가리킵니다(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다 순종의 삶이었지만 성경 로마서 5장 18절 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한 순종하심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은 단 한번 뿐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현대인의 성경)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한 순종하심, 즉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한번 뿐이기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19:30).

이렇게 아담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은 다릅니다(정반대임).

(2) 행동의 결과가 다릅니다.

먼저 아담의 한 범죄(한 불순종)의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19절). 여기서 “많은”이란 원어 헬라어로 “모든”입니다. 즉, “많은 사람”이란 ‘모든 사람’, 즉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참고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에서 “많은 사람”이란 모든 사람, 즉 온 인류를 가리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의 한 범죄(한 불순종)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에(12절)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18절)는 말씀과 많은 사람이 죄인되었다(19절)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한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18절).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19절). 여기서도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온 인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구원받은 사람들인 신자들만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18절과 19절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많은 사람”은 원어로는 ‘모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한 순종)의 결과로 온 인류이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하심을 받아 의인이 되었고 또한 생명(영생)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한 의로운 단번의 행위로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하심을 받아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만이 의롭다하심을 받아 의인이 되었기에 ‘모든 사람’(신자와 불신자들 다 포함하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담에게 속한 불신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있을 것입니다(18, 19절). 그 결과 여러분은 정죄에 이르러서(죄인이라는 판정을 받아서)(18절) 사망이 왕 노릇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죽음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을 것임)(17절). 우리는 아담처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아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 신자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의인답게 의를 행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18, 19절). 그 결과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18절)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을 것입니다(17절).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8, 19절을 보십시오: “... 이른 것 같이 ... 이르렀느니라”; (19절) “... 된 것 같이 ... 되리라.” 아담이 한 것이 “많은 사람”(모든 사람)에게 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많은 사람”(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모든 신자들에 주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가입니다. 성경은 3가지 전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온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범합니다. 갓난아기의 경우는

자기가 지은 죄가 없지만 아담의 범죄가 전가되었기에 그 아이도 죄인입니다. (2) 우리 죄인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한 성경 로마서 8장 3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 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됨)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므로 하나님의 의(고후5:21)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롬5:19).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점은 행동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행동의 다른 점이란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행동의 결과란 아담의 한 범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점은 대표와 전가입니다. 대표란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입은 자들의 대표이십니다. 전가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처럼(그 결과는 사망),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그 결과는 영생). 우리 모두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길 기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12-21절]

성경 로마서 5장 20-21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먼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20절)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 주신 율법은 왜 들어왔습니까? 그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범죄가 더하다’는 말씀은 죄가 아주 많다, 죄가 매우 가득하다, 죄가 팽팽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이 가득차면 터질듯이 팽팽하듯이 죄가 팽팽하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이유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율법이 들어온 것이 죄를 더 짓게 하든지 죄를 부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롬3:20)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를 들어, 캄캄하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없는 아닙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큰 물체부터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작은 물체까지도 보이되 심지어 먼지까지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있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몰랐다가 율법으로 인해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1-2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아 가면 알아갈 수록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화내는 것, 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재판을 받을 정도의 큰 죄임을 깨닫고 화를 내지 않고 절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28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 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아 가면 알아갈 수록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고 쓰여 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정욕의 눈으로 다른 이성을 바라보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했다는 죄를 깨닫고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바라보므로 간음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죄를 알려주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므로 죄를 짓지 않고자 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몰라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 총만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 “죄가 더한 곳”, 즉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 찼을 때 이 힘이 센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했습니다(사망 밖에서는 왕 노릇을 못함). 성경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현대인의 성경)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육체적 죽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므로 홍수 때 죽지 않았습니다(8절). 그의 경우에는 육체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 찼을 때 은혜는 한이 없이 더욱 넘치되 놀랍도록 풍성하게 넘쳤다는 말입니다[(요1:16) “... 은혜 위에 은혜라”].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 로마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범죄”

란 죄인들인 우리 모두의 원죄,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를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대신하여 뿐만 아니라 그 죄 하나하나의 대가(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것입니다(18절). 이 얼마나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로다 형용 못하며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참고: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성경 로마서 5장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는 말씀에서 “의”란 그리스도의 무궁한 의를 말합니다(박윤선). 믿음으로 무궁한 의를 소유한 신자는 은혜의 왕권 아래 있어서 영생합니다(박윤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18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궁합니까. 새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입니다: (1절)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보다 깊다 너 곧 닻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2절)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보고 마음 약하여 못가네, (4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거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네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후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저어가라.“ 성경 로마서 5장 2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영생으로서 이것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8:30).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은 구원을 말합니다. 영생은 미래에 될 일이지만 의심할 것 없는 100% 확실한 미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현실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5:18) 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구원으로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또한 과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말입니다(요3:16)(과거 구원). 영생이란 중생(거듭남)으로 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전진하여 마침내 완성의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중생의 증거요, 중생이란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새로워져서(새 창조가 되어

서) 중생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었지만 중생한 후로부터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영생을 그저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란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요한복음입니다. 헬라어로 “영생”은 “조에(life) 아이오니오스(eternal)”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에”(생명)라는 말과 “아이오니오스”(영원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영생”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인터넷). 이것은 첫째로 시간적으로 “끝없이 지속되는 생명”을 의미하고, 둘째로 질적으로 “인간의 삶과는 다른 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말에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이란 의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신적인 삶이란 의미를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영생”의 의미는 공관복음처럼 내세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도 의미하지만 그보다 현재에 누리는 축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그 축복을 주님 안에서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에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요17:3)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내세의 축복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바로 성령님의 성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부분적으로나마 맛보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축복은 평안입니다. 비록 평화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영생의 축복인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 (1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3절)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4절)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난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후렴) 영생을 누리며 주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거듭난)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길 기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로마서 6장 1-14절]

성경 로마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란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인 “...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란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21절)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6:1, 현대인의 성경). 다시 말하면,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2절).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2절).

성경 로마서 6장 3-4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였기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3절). 성경 로마서 6장 1-11절에서 ‘(연)합하여’란 의미의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합하

여”란 단어가 3번, “연합하여”란 단어가 2번, “함께”라는 단어가 4번, 그리고 “안에서”란 단어가 1번].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리 중에 “연합” 교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7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른 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이십니다(4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인 우리가 혼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 5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시요, 성부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즉 연합되지 않았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5절).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22-23절을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장사”까지 되었습니다(4절).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말씀은 완전히 죽은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신바 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4절).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최상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으시고 장사되신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에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최상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므로 “죽은 자”인 우리

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죽은 자들)도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속한 죽은 우리도 다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목적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4절).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것처럼 우리도 장사되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상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는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창2:7; 고전 15:45). 이 “생령”은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었고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생령이란 죄를 안질 수도 있었고 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으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첫 아담과 같이 죄인 되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엡2:1). 그런데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고후5:17). 우리는 중생, 거듭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성경 로마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과 다릅니다. 새 생명이란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합니다. 새 생명을 얻는 우리는 죄를 질 수도 있지만 멸망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리할 때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꾸만 짓게 됩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롬6:4).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2-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 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다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해서 은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현대인의 성경)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 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천국에는 최상의 좋은 것만 있습니다. 생수가 있고, 생명의 강이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새 찬송가 610장 “고생 과 수고가 다 지난 후”입니다: (1절)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2절)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써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은 뵈옵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3절) 앞서간 친구 를 만나 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후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뵈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

[로마서 6장 1-14절]

성경 로마서 6장 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 여기서 “그의 죽으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성경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자 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성경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성경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같은 모양”이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서 우리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죄도 없으시고 죽으실 수도 없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연합”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양으로라도 죽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3절)(성령의 세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귀한 육체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옛 사람”이란 옛날 사람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

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요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현대인의 성경)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므로 “모든 사람”(우리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옛 사람이 죽었으므로 옛 사람은 끝났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6절에서 “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의 몸”이란 “옛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죄의 몸”이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몸”에 대해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한 오해는 죄를 미워한답시고 죄의 몸을 미워하므로 몸을 고생케 하던지 심지어 학대까지 합니다. 그런데 “죄의 몸”이란 본래 하나님께서 흠으로 빚으시사 첫 사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므로 생령이 됩니다(창2:7; 참고: 고전 15:45).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과거의 몸). 이렇게 과거의 몸인 “죄의 몸”(옛 사람)은 가인처럼(요일3:12) 형제를 미워하는 몸이요 살인을 하는 몸입니다(15절).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현재의 몸).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얼마나 귀한 몸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한답시고 우리의 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현재의 몸은 “새로운 피조물”(“새로운 존재”)이요 “새 사람”(고후5:17, 현대인의 성경)의 몸이요 “의의 종”(롬 6:18, 현대인의 성경)의 몸입니다. 이 의의 종의 몸은 의를 행합니다(요일2:29). 즉, 새 사람인 의의 종의 몸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3:11, 23). 또한 의의 종의 몸은 성령의 전으로서(고전6:19) 성령의 열매인 사랑(갈5:22)을 맺어 사랑하는 몸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몸은 변화/부활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썩을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부활할 것입니다(미래의 몸).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새 생명이 된 몸은 천국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미래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신령한 몸)이요 영의 몸이요(고전 15:42-44)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몸으로서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을 것입니다(48절,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빌3:21,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의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

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엡5:26-27, 현대인의 성경). 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몸은 천국에서 주님의 이중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22:37, 39)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몸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 또는 “죄의 몸”이 죽기 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했기에(5:17, 21) 우리가 죄에 종노릇하여 죄에 끌려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 사람(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기에 더 이상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을 하지 않기에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옛 사람(죄의 몸)은 이미 죽었기에 죽었으면 끝난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가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12절).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13절, 현대인의 성경).

성경 로마서 6장 7절을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현대인의 성경)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 “옛 사람”(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인입니다[(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 (22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14절). 우리는 죄를 안 짓고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6:7,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18, 22절). 우리의 옛 사람, 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6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죄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귀한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영생 길을 걸어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

[로마서 6장 1-14절]

그리스도의 죽으심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은 무의미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화패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화패의 앞면과 뒷면을 분리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란 단어를 두 개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1) 헬라어 원어로는 ‘죽음에서’이고, (2) 한국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인지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인지, 어느 번역이 더 적합한 것일까요? 한국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번역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에서’라는 번역은 죽은 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란 번역은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도 “죽은 자 가운데서”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은 자”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죽은 자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죽은 자”라는 단수와 “잠자는 자들”(즉 ‘죽은 자들’)이라는 복수가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이어서 더 많은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다 부활할 것을 가리킵니다. 예

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입니다[“새 생명”(롬6:4)].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까? 성경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즉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란 최고/최대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런 놀라운 최고/최대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시되 말로만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데 성자 하나님도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1:25).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10:18).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습니다(롬1:4). 성경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리심과 같이”(롬6:4)] 성경 로마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에서 “대하여”란 “위하여”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위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33년을 계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 살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셨고, 천상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 로마서 6장 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모양으로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같은 모양”이란 반드시 실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체가 없으면 같은 모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온라인 예배 동영상으로 보는 원로 목사님은 실체가 아니고 같은 모양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실체는 집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는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모양인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4절).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처럼). 장사되어진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그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영혼의 부활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살리셨도다”란 새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중생/거듭남).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 사탄을 따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므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지만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처럼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이기에 우리의 부활은 실체가 아니라 같은 모양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줄을 믿노니”[(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여기서 “살아날 것”이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성화되어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서 “믿노니”란 전폭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우리가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현대인의 성경)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여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기에 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7-9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현대인의 성경)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죽은 후 천성에 살면서 영원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같이 사탄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천성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만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결과

[로마서 6장 1-14절]

성경 로마서 6장 12-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서 “너희”(12절) 단어가 로마서 6장 1-14절에서 7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너희”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4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 (2) 물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3)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들, 그리고 (4)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인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일을 성령의 세례라 말합니다(고전12:13).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전통 신학 용어인 거듭남(중생)과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내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죄인이 복음을 들을 때, 죄로 굳게 닫힌 그의 마음을 열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역사하십니다(행 16:14). 그렇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고후 5:17). 이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죄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일이므로 반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평생 단 한 번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미 거듭난 신자에게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한 번 더 거듭나라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에게 “당신은 다시 한 번 더 무덤 문을 열고 나와야 합니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이들은 주님께 다시 접붙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신자를 빼앗아 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롬

8:38, 39)(인터넷).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다른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는 처음 예수를 고백할 때의 성령의 역사(고전 12:3, 13)를 의미하는 단회적인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아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인터넷). 혹시 지금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물세례를 받고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과 연관을 짓고 있기에 11절 말씀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는 10절 말씀과 연관이 짓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10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아 계심과(10절)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분이십니다(10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죽은 우리(3절) 또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로 믿고 그리 여겨야 합니다(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10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한 그 분과 함께 살아난(중생한) 우리(5, 8절)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10절)로 여겨야 합니다(11절). 그러나 성경은 “여길지어다”(11절)에서 끝나지 말고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답게(11절)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2-14절).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답게 생활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11절). 여기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 로마서 6장 12-13절에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 죄는 악독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단번에 죽은 자이기(11절)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또한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12절).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6, 9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6절), 죄를 짓지 아니한다(9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떠한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3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 고의로 짓는 죄:

성경 시편 19편 13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현대인의 성경) “주의 종을 지키셔서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 없이 완전하고 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b) 습관으로 짓는 죄:

성경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런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해져서 더럽혀집니다”].

(c) 모의를(계획)하고 작정하고 짓는 죄:

성경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고의적으로나 습관적으로나 계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되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9편 7-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즉,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여 다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9편 13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현대인의 성경) “주의 종을 지키셔서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 없이 완전하고 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귀는 악랄하고 악독합니다. 자기가 우리를 죄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므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 침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를 우리를 피할(도망갈) 것입니다(약4:7). 어떻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까? 성경 빌립보서 2장 12-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케 하시고 물리치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고의로 짓는 죄나 습관적으로 짓는 죄나, 모의하고 짓는 죄 외에도 다른 죄들을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현대인의 성경) “우

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사욕”이란 원어 헬라어 단어가 8가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번역된 말은 “정욕”입니다. 그 외에도 “욕심”, “탐심”, “사욕”, “색욕”, “욕망”, “의욕”, “열정”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금하는 말씀을 더하고 싶은 죄악 된 옛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옛 본능의 욕구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욕구나 육체적인 욕구에 대해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지체”란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지체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눈, 귀, 입, 발, 손 등등). 또한 여기서 “지체”란 생각의 능력과 그 외에 것들도 포함됩니다. “무기”란 도구를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도구)로 죄에게 내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란 놈이 우리의 지체를 도구로 쓰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죄는 우리 몸의 지체인 발을 유혹해서 우리의 발로 하여금 죄인의 길에 서게 만듭니다(시1:1). 또 다른 예는, 죄는 우리의 눈을 유혹해서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요일2:16) 눈으로 죄를 범하게 하고 마음으로도 간음을 하게 합니다(마5:28).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롬6:13).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13절). 우리는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13절). 새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를 보십시오: (1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

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2절)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3절)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4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5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요일2:29)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로서(롬5:1-11) 의를 행해야 합니다(요일2:29).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29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 의롭게 산다는 것은 의로우신 주님처럼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서(3:7) 자신을 깨끗케 하는 것입니다(3절). 또한 우리는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11, 23, 24절). 이렇게 의를 행하는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서(롬6:13)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6장 15-18절]

성경 로마서 6장 12-14절 말씀[제목: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결과]을 다시금 복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아 계심과(10절)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또한 그리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12절).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12절). 여기서 “사욕”이란 단어가 원어 헬라어 단어가 8가지로 번역이 되었다고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말했지만 실제로는 10가지 이상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번역 중에는 죄가 아닌 선한 일에 대한 ‘욕망’/‘욕심’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란 말씀을 개역한글 성경책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롬6:13).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13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13절). 우리는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13절).

오늘은 로마서 6장 15-1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7-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로마서 6장 17절에 나오는 “본래”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는 죄의 종(17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18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17절). 또한 여기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너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23절에서 “우리”라는 단어(주로 전반부에 나옴)는 11번 나오고 “너희”라는 단어(주로 후반부에 나옴)는 21번 나오는데 “우리”와 “너희”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서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장사되었다가 부활한 “우리”/“너희”를 말합니다(4절). 여기서 “세례”에 대해서 4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1)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 (2) 물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3)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들, 그리고 (4)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 “우리”와 “너희”는 (1) ~ (3)까지만 적용됩니다.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은 “우리”와 “너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너희”는 (1)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 (2) 물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3)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지 (4)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물세례만 받고 직분자로 섬기다가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란 중생/거듭남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 세례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17절). 그 이유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태어나서 그러다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둘째 사망)] 지금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17-18절).

성경에는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성경 누가복음 17장 11-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눅17:11-12). 그 때 그 나병환자들은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13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14절). 그런데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환자들 중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15-16절). 또 다른 예는, 성경 사도행전 3장 1-10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을 때 나면서부터 앓은뱅이가 성전 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습니다(1-3절). 그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6절).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앓은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었습니다(7-8절).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8절). 우리는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려 감사했던 나병환자였던 그 사마리아인과 치유를 받은 그 앓은뱅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하루 종일 살다가 감사로 하루를 마친 후에도 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생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성경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본”이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들어가 복음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함이 그 복음의 향기를 들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굳센 믿음으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하십니다. 또한 성경 로마서 6장 17절에서 “마음으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순정)으로 순종해야 함(형식적으로 말고)을 말씀합니다. 그 예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므로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살전1:6). 그리고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7절).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왜 순종의 삶을 못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8절을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죄가 우리 삶 속에 왕 노릇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았고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대항하여 싸울 수가 있게 되었고 또한 죄에서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도망갑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닙니다(요일3:6, 9). 우리는 더 이상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고범죄), 습관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면(습관적인

죄) 또한 계획적으로 모의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모의죄). 그런데 우리는 그 외에 다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는 사도 베드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겓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셔서 간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간구하고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막14:32-37).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37-38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범죄나 습관적인 죄나 계획적인 죄가 아니라 약해서 시험에 넘어져 짓는 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마26:70, 72, 74).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75절). 또한 사도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 받을 일을 범했습니다(갈2:11). 그는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나가버렸습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하며 밖으로 나갔고 바나바 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13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사도 베드로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성경 요한 일서 1장 9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8절을 보면 “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종이십니다: “의로운 종”(사53:11), “의로운 가지”(렘23:5), “의의 태양”(말4: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바울 시대 때 종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종이란 노예였습니다. 노예란 자기 자유/인권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노예란 전쟁에서 저서 종이 되기도 했고, 빛 때문에도 종이 되기도 했고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마디로, 할 수 없이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합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사망”

[로마서 6장 19-21절]

성경 로마서 6장은 “죄”(1절)로 시작해서 “죄”(23절)로 마치는 장입니다. “은혜”(1절)로 시작해서 “은사”/“선물”(은혜)(23절)로 마치는 장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장입니다(5:20). 성경 로마서 6장 19-21절을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 로마서 6장에 마지막 부분인 19-21절을 셋으로 나눠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1) “그 마지막이 사망,” (2) 그 마지막은 영생, (3) “하나님의 은사.”

첫째로, “그 마지막이 사망”이란 말씀입니다(롬 6:21).

어떤 사람이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까? 죄의 종인 사람들입니다(20절). 오늘 이 로마서 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죄의 종인 사람들은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죄의 종에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1) 죄의 종은 자기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워 줍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본래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부정과 불법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죄의 종으로 드

린 것처럼 ...”]. 여기서 “지체”란 우리의 사지/몸을 가리킵니다(예를 들어, 눈, 코, 입, 발, 손 등등). 또한 “지체”란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소유 등도 가리킵니다. 성경 시편 책(1-150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 사람의 지체/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지체를 한결 같이 선/의에 내 줬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신들의 지체를 불의에 내줬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적게 말하고 있음). 성경 시편 140편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악인들은(1절) 자신들의 지체인 마음속으로 악을 꾀했습니다(2절).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혀를 뱀의 혀와 같이 날카롭게 했고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와 독이 있었습니다(3절). 성경 시편 140편 9절을 보십시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시편 기자를 에워싼 악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들 때에 자신들의 입술로 시편 기자에 대해 악담/저주를 했습니다. 우리 의인들은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예배하고 감사합니다.

(2) 죄의 종의 생활은 의에 대하여 자유로움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즉, 죄의 종은 의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되 그/녀의 마음은 정결(순결)하지 못하고 죄악이 가득 차 있기에 그런 죄악 된 마음에서 제 멋대로 죄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 죄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 합니다(예: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미워함).

(3) 죄의 종은 부끄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 여기서 “그 때에”(21절)란 우리가 죄의 종(20절)이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어둠 속에서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을 때 부끄러운 어둠의 일

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면서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현대인의 성경)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4) 죄의 종의 마지막에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1절을 보십시오: “...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현대인의 성경) “... 그런 생활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의 사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사망의 결국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가 죽는 이유는 죄의 값으로 죽는 것입니다[“죄의 값은 사망이요 ...”(롬6:23)]. 그러나 의의 종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값으로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체가 죽는 것을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성경은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가리켜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성경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자는 자들”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가 죽는데 아니라(죽는 것은 끝이기에) 자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는 언젠가는 깨어날 것입니다. 그 언젠가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15절).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현

대인의 성경)](16절).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즉 죄의 종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것이기에 그들의 육체의 죽음(사망)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등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서 그곳에서 소멸되지도 않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죄의 종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으로서 둘째 사망, 영원한 불 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호흡이 다하는 그 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

[로마서 6장 19-22절]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롬6:21).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첫째로, 죄의 종은 자기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워 줍니다(19절). 여기서 부정이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어긴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죄의 종의 생활은 의에 대하여 자유로웁니다(20절). 셋째로, 죄의 종은 부끄러운 열매를 맺습니다(21절). 넷째로,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21절). 여기서 사망이란 3가지를 의미합니다: (1) 영적 죽음: 죄의 종은 이미 영적으로 사망한 자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종은 생명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2) 육체적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죄의 값으로 죽습니다(23절). (3) 영원한 죽음: 죄의 종은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는 둘째 사망에 이릅니다(계20:14, 21:8). 여기서 둘째 사망이란 불 못(계20:14)으로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짐을 말합니다(21:8). 거기 불 못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막9:48). 한 부자가 죽어 땅에 묻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머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부르짖었습니다(눅16:19, 22-24절, 현대인의 성경).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

하는 자들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 못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길 기원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롬6:22). 다시 말하면, 의의 종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은 죄의 종의 마지막이 아니라 의의 종의 마지막인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러나 이제는” 삼중으로 강세를 표현하고 (강한 뜻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래(17절) 죄의 종으로서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고(19절),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며(20절),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으며(21절),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21절). 그러나 이제는(22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16절), 의에게 종이 되어(18절), 죄로부터 해방되고(22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22절). 여기서 의의 종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1) 의의 종이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2절에서 “너희”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으로서 죄를 따르며 죄가 왕 노릇하는데 순종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이 되었는가 하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 되었었습니다(5:12). 그래서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6:17)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22절).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므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6절).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22절). 전에 우리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었습니다(19절). “그러나 이제는”(22절)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따르며 섬깁니다. 이제는(19, 22절) 우리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릅니다(19절). 성경은 두 주인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

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살아야지(롬6:19, 현대인의 성경) 죄의 종으로 드려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면 안 됩니다(19절).

(2) 의의 종은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줍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줬지만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줍니다(19절). 예를 들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줬습니다. 새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가사를 보면 우리 지체(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야 함을 헌신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2절)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3절)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4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5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가사의 근거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성경 로마서 14장 7-8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의의 종 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3) 의의 종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 순간에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은 성도라 불리는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천주교는 사람이 의롭다 해서 그 순간에 성도라 불리지 않습니다. 그는 의롭다하는 삶을 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성도’ 또는 ‘성자’라 불리게 됩니다(예: 성 테레사). 성경 로마서 6장 19절에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권면/명령입니다. 의의 종인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살아가므로 점점 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22절). 그 말은 우리는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맏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4) 의의 종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롬6:22).

성경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16절), “의에게 종”이 되어(18절), 죄로부터 해방되고(22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22절).

하나님의 은사

[로마서 6장 23절]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시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돌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첫째로, 중생입니다.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의 시초(시작)입니다. 영혼이 거듭난 것(다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중생이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말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려주신바 된 것을 말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중생하기 전/거듭나기 전/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엡2:1). 우리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었고(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명령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생령으로(창2:7)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으므로(3:6)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영혼만 죽은 것이 아니라(영적 죽음),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롬 5:12).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되었고 또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여 영원한 죽음(“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6:23).

그러면 언제 우리가 중생했습니까? 언제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입니다(엡2:1). 그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2절). 우리는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3절). 바로 그 때에(2절) 우리가 중생했고/거듭났고/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중생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4-5절) 어떻게 살리셨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롬 6:23)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분과 함께 죽고 장사되게 하시고(3-4, 8절)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4절) 우리도 그 분과 함께 살게 하시사(8절)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4절). 이 신비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므로 우리의 옛 사람(중생하기 전의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새 사람/중생한 사람/거듭난 사람/새 피조물이 되어 새 생명으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란 말씀은 중생한 우리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죽는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의 종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값으로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8: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2절).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6:17)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에(22절; 참고: 18절)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23절). 오

히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요11:25)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살4:16).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성경에서 자는 자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3절).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에 못가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육체적인 죽음이 없기에 우리는 지금 천국에 못가지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비록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요11:24-25).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강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눅23:42).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43절). 주로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수들은 이틀 내지 사흘 만에 사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제 삼시(오전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막15:25), 제 구시(오후3시경)에 죽으셨으니(15:34, 37) 약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 강도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인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입니까. 또한 육체적 고통을 이틀 내지 사흘 동안 십자가에서 겪었어야 했는데 약 6시간만 겪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둘째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중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중생의 완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주님의 재림 때 몸은 변화하던지(그 때까지 살아있다면) 또는 부활하여 (죽었다면) 영혼과 연합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현대인의 성경)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토해 냈으며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내준바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2-53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때까지 살아 있는 성도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현대인의 성경)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4-5절을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천국에는 음부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음부에 없는 것이 천국에 있음).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고전13:12,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요일3:2, 현대인의 성경).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새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1절).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 할 것입니다(계22:5).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롬6:23, 현대인의 성경; 참고: 요3:16).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란 말씀에서 “주 안에”라는 말씀이 164번 나오는데 3개만 소개합니다: “...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살전4:14),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중생한 자들)(롬6:11), “...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완성된 영생,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임)(롬6:23).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58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많은 줄 앞이라.”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받고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종생과 영생으로 나눠서 묵상할 때 영생의 시초(시작)인 종생과 종생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생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Already) 과거 (past)에 종생했고/거듭났고/새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Not-yet) 미래 (future)에 올 예수님의 재림 때 영생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인 현재 (present)를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답변을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에 3절 가사인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종생과 아직도 “영생” 사이를 이 땅에서 살면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은 천국 생활이요, 그 영생을 누리는 마음은 천국이요(참고: 눅17:21), 그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주님 중심된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시작인 이미 종생과 영생의 완성인 아직도 영생 사이에서 어떻게 영생을 누리면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요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요일3:24)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부 하나님(3:1-2)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2:2)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3:16)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요 또한 영원한 생명이신 성자 예수님과 사귄(교제)을 누리므로(1:1-3)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3:11, 23, 24)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갈 5:22-23). 그 주님의 계명은 이중계명(twofold)으로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의 계명)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수평적인 형제와의 교제 속에서의 계명)입니다(마22:37, 39). 이 계명이 바로 천국의 계명입니다. 이 주님의 이중계명(천국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요, 주님 안에 사는 것이요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천국 생활입니다(요15:9-12).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세상(천국)에서 충만히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

[로마서 7장 1-4절]

성경 로마서 7장 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성경 로마서 7장은 “율법장”입니다. 성경 로마서 7장 1-3절에 “법”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4절에 “율법”이란 단어가 1번 나옵니다. 여기서 “법”(1-3절)이란 “율법”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1절)라고 말했는데 로마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나 “자매들”은 성도로서 십계명 등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1절). 그런 후 2-3절에서 그는 부부에 관한 법을 비유로 율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남편이 살아 있을 때만 법이 적용이 되고 그가 죽으면 법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이란 죽음 외에는 부부가 헤어지기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는 3절에서 남편이 살아 있는데 그 남편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음녀라고 말했습니다[간음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3절). 그런 후 바울은 4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했는데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라고 정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Who)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입니까? 바로 “형제들”입니다(1, 4절).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입니다. 전에(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율법(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율법(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에(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율법(죄) 아래 있었기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어떻게(How)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7:4).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5절을 보십시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서 그가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했지만 아무리 그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고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울(바울)이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4-5절을 보십시오: “금훔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중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3절) 금훔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4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5절) 또 함께 일으키사(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6절).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현대인의 성경)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천성(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자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 우리를 속량하시고(5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5절, 현대인의 성경)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요일2:1)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2절). 율법 아래에 나신(갈4: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시고 또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사(요일3:16)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1, 2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롬8:15; 갈4:6; 참고: 막14:36).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목적은 무엇(What?)입니까?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7장 4절을 보십시오: “...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현대인의 성경) “...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란 로마서 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가리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영생은 그리스도 함께 성자의 보좌에 앉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영생의 열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시오: “...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 마디로, 성경 로마서 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란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우리는 더욱 더욱 거룩하며,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영생을 이루라는 의미로서 우리의 성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율법과 무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 로마서 13장 8-10절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의미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새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로 결론을 맺습니다: (1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2절)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3절)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4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5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율법에서 벗어난 자

[로마서 7장 5-6절]

성경 로마서 7장 5-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성경 로마서 7장 5-6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 3번 + 6절에 2번 나오지만 5절에 “우리”와 6절에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5절에 “우리”는 중생 전 “우리”이고 6절에 “우리”는 중생 후 “우리”입니다. 여기서 중생 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인 불신자 “우리”이고, 중생 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인 신자 “우리”입니다.

중생 전 “우리”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로마서 7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라는 말씀에서 “육신”이란 크게 3개를 말합니다: (1) 순수한 몸, (2) 악에 영향을 받아서 도덕적으로 악한 육신, (3) 선한데 영향을 받은 선한 육신. 성경 로마서 7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은 두 번째인 악에 영향을 받아서 도덕적으로 악한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란 중생 전 우리가 죄에 살았을 때 (죄에 거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습니다(5절). 여기서 “죄의 정욕”에서 “정욕”이란 단어는 순수한 열정이나 열심, 간절히 사모함이라는 의미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5절에서는 “죄의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정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체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예를 들어, 눈, 코, 입, 손, 발, 등등) 중에 역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는 죄의 정욕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5절). 중생된 후에 신자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열매(4절)로서 그 열매는 영생이지만(6:23), 중생 전에 불신자가 맺는 열매는 사탄을 위하여 맺는 열매로서 그 열매는 바로 사망입니다(5절). 폭군 같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기 전에 사망(죽음)의 열매를 맺게 했었는데 그 의미는 죄의 값으로 우리 육체를 죽게 만드는 열매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인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구덩이에서의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중생 전에 이 사망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는 우리 영혼이 죽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으며 또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죄 값으로 육체가 죽고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둘째 사망”).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 중생 전에 죄 값으로 육체 죽음을 맞이하고 그 마지막인 둘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게하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중생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값으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게 될 것이며(살전4:13-18),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요 3:16).

중생 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로마서 7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이제는”이란 3중으로 강세를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 전에는 사탄을 위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었는데(죄 값으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4절, 6:23).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7:6). 중생 전 우리는 율법에 얽매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우리는 얽매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구속과 율타리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났습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5절을 보십시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므로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속량하셨기

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릴 “속량”하셨다는 말씀은 합당한 값을 다 주고 사탄 아래와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구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합당한 값, 즉 대가를 사탄에게 받쳤다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4절) 그 아들의 영(6절) 이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고전6:19) 또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갈4:6). 성경 로마서 8장 15-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7:6). 다시 말하면, 중생 전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려서 사탄을 섬겼지만 중생 후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란 하나님께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므로 이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고후 5:17)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사탄이 우리 지체들을 사용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성령님 우리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지체들인 손과 발과 음성과 보화와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새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이제 우리는 율법 조문의 묶은 것으로 아니합니다(롬7:6). 여기서 “율법 조문”이란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자 모세를 산으로 불러 그에게 돌판 두개에 친히 글자를 쓰셔서 주셨는데 그 글자가 바로 율법 조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생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조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고 중생하여 성령님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생한 우리는 하나님의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루셨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8:26). 간구하시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27절). 그리고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거슬리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므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는 말씀처럼(13:8)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는 맺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사는 것이요(요일3:14, 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빌3:20).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요15:11).

“율법이 죄냐?”

[로마서 7장 7-9절]

성경 로마서 7장 7-9절을 보십시오: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죄입니까?(7절)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성경 로마서 7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성경 로마서 7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성경 로마서 7장 6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세 성경 구절을 보면 “율법이 죄냐”(7절)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7절)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려줍니다. 율법으로만/율법 외에는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한 예로 사도 바울은 “...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7:7)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말씀했기에 우리는 탐심이 죄임을 알 수가 있습니

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십시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2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룹니다(롬 7:8). 죄는 우리가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다’라는 말씀에서 죄란 사탄을 말합니다. 즉, 사탄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룹니다. 그 예로 창세기에 타오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생령이 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케 할 것인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17절). 사탄인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합니다. 이 뱀이 아담의 아내인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3:1). 여자의 답변을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2-3절). 이 여자의 답변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2:17)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했습니다(3:3). 사탄(“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과 정반대로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여자와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2:17)는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은 기회를 엿보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해서 결국에는 아담을 죄를 범케 하여 그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습니다(롬7:8). 사탄은 탐심으로 인해 온갖 탐심을 갖도록(바라도록)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물질에 대한 탐심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이 있고 또한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 권

력(높은 권세)을 원하고 명예욕까지 생깁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심은 자꾸만 온갖 탐욕으로 뻗어나갑니다. 여기서 “이루었나니”(8절)란 말씀은 탐욕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불만족 속에서 더 취하려고 합니다. 만족을 못합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인기이든 등등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많아지고 누리다가도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로 인해 감사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사(선물)로 주신 영생으로 인해 감사하며 만족해야 합니다(6:23). 믿음 및 모든 영적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 만족해야 합니다(엡1:3; 2:8).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7:8). 사탄이 계명(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범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마치 죽은 것 같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나서 우리를 유혹하며 죄를 범케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우리는 죽었습니다(9절).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 예는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출20:8). 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알고도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우면 우리가 모릅니다. 빛이 비춰야 우리는 어두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또한 새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가 생각납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1)

[로마서 7장 8-13절]

성경 로마서 7장 10절을 보십시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 계명”이란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말씀하신 계명으로 창세기 2장 16-17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만일 아담이 그 계명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생명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롬7:10)에 순종했다면 영생(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10절).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까?(10절) 성경 로마서 7장 11절을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죄(죄의 세력/뱀/사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으로 아담을 속여서(창3:1-5) 그 하나님의 계명(2:17)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결국 죄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롬6:26). 그리고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5:12).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죽음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다해(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영생 길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죄(죄의 세력/사탄)가 기회를 보다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룹니다. 들짐승에 가장 간교한 뱀이(창3:1) 기회를 틈타서 그 여자(아담의 부인)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만들었습니다(6절). 지금도 가장 간교한 사탄은 기회를 틈타서 우리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요일3:16, 현대인의 성경).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롬8:10).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목적과 계획과 유혹/미혹을 잘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현대인의 성경)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미혹을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마4:1). 마귀가 세 번 시험을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기록되었으되”[“성경에는”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4, 7, 10절). 우리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엡6:17)으로 사탄의 미혹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지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십시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현대인의 성경) “만일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지 않았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환난 날에 여러 재난들을 가만히 놓아두시면 구원 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 날들을 감하실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아가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사 결국에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는 요한계시록 2-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들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유혹/미혹/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계승해 주므로 그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므로 영생에 이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 오실 때에 그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을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2)

[로마서 7장 8-13절]

성경 로마서 7장 10절을 보십시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 계명”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살 수가 있습니다(예: 10년을 지키면 10년을 살 수가 있고, 100년을 지키면 100년을 살 수가 있고, 1,000년을 지키면 1,000년을 살 수가 있음). 이 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계명은 창세기 2장 16-17절에 기록돼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계명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고, 죽지 않으며, 생명을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살 수가 있음).

사도 바울은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롬7:10)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 계명이 …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성경 로마서 7장 11절을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탄(“죄”)이 기회를 타서(틈을 타서) 그 계명을 이용해 속였습니다. 속았기에 죄를 범했고 그 결과 나를 죽인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공격하고 죄에 빠트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를 사랑해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살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뱀과 여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는 뱀에게 틈을 보여줬습니다(창3:1-3). 그 결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4-5절). 그 결과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7절). 사탄은 유혹을 해서 죄를 범게 해서 자기의 줄개로 삼습니다. 사탄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24:24). 우리는 이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넉넉히 유혹을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3장을 보면 소아시아(현재 터키 지역)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일곱 교회 외에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후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를 정한 이유는 그 때에 대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돼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을 많이 받은 교회로서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계3:8). 여기서 “열린 문”이란 주로 학자들이 전도/선교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8절). 주님께서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9절).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께서 또한 그 교회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10절). 그 교회는 지상에서도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11절) “네 면류관”].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신령한 율법

[로마서 7장 14-20절]

성경 로마서 7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 성경 구절 말씀을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2) “나는 육신에 속하여”(“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3) “죄 아래에 팔렸도다”(“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부분의 말씀인 “죄 아래에 팔렸도다”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 죄 아래에 팔렸도다”(“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팔렸도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21장 20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한 왕 아합은 자기 자신을 죄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에 팔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죄에 팔리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51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현대인의 성경)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뱀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언제 다윗이 이 회개의 시를 썼는가 하면 그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총성된 군인 우리아를 죽였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사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사 회개케 하셨을 때에 다윗은 이 회개의 시인 성경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자기가 “죄의 종(또는 죄의 노예)으로 팔렸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죄의 종” 또는 죄의 노예는 사도 바울 당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예 중에도 부모가 노예이기에 자녀들도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은 아무 권한이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주인의 노예였을 뿐입니다. 주인이 돈 주고 사온 노예이기에 자기의 재산이요 가구 같은 존재로서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그 노예를 팔 수도 있었고 또한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죄의 노예로 팔렸다고 말했을 때 그는 죄나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바울로서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주님의 종이요 선교사였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가 바로 그가 제2차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죄의 노예로 팔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바울을 죄의 노예로 팔았습니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도 바울처럼 죄 아래 팔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 아래 팔리는 것도 못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죄를 범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중생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의 노예로 팔려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현대인의 성경)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는 고백을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고백했습니다. 즉, 그는 언제 죽을지(순교할지)도 모를 때에 로마 감옥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만큼 자기에게 죄가 많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죄와 멀리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죄를 심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죄의 노예로 팔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죄의 노예로 팔리고 있었기에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74-75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세 번째 부인할 때에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고 까지 말했습니다(74절). 그 때에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인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75절). 전설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죄의 노예로 팔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사도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죄의 노예로 팔게 한 사탄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사탄의 공격과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이제 후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딤후4:7-8).

“내 속에 거하는 죄”

[로마서 7장 17-20절]

성경 로마서 7장 17, 20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속에 거하는 죄니라 …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란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6절과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빌3:6),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딤후1:13).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행9장). 예수님과 사울(바울)과의 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4절).

사울(바울): “주여 누구시니이까”(5절).

예수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5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사울(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롬11:13; 갈2:8). 바울이 안디옥에서 성겼을 때 선교사가 됩니다. 지금의 유럽으로 가서 고린도에서 3개월 유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여기서 “속”은 바울 자신의 육신을 말합니다. 성경 로마서 7장 18절을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 그러면 “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로마서 7장 14절을 보십시오: “…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 육신”(18절)이란 바울이 육신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유혹과 타락에 놓여있는 육신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도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비록 아담은 생령으로 창조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므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장 3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1:2),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3:3).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중생했지만, 그래서 성도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육신도 유혹과 타락에 놓여 있는 육신입니다.

성경 로마서 7장 17, 20절에 “거하는”에서 ‘거한다’는 말은 틈을 타서 침입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손님으로 초청 받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임시 하숙/전세도 아닙니다. ‘거한다’는 말은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 거주(영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거주하시는데(고전6:19) 또한 죄도 거주하고 있습니다(롬7:17, 20).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가 우리 속에 거주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죄가 우리 속에 거주하는 것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 로마서 7장 17,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우리는 죄의 기원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계명/율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를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으므로 불순종하여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3장).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의 기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동시에 복음의 기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이 약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셨습니다(요19:30).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뱀(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

게 했습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천사인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세력은 성도들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패했는데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패잔병인 사탄의 줄개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과 사탄의 줄개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롬7:15, 현대인의 성경). 그는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했습니다(19절). 그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18절, 현대인의 성경). 그는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사탄의 줄개들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은 선하다고 시인/고백했습니다(14절). 그리고 그는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자기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17, 20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셨으므로(창3:15; 요19:30; 골:2:15)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하며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약4:7, 현대인의 성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2-54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예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하심을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잘 싸워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 (1)

[로마서 7장 21-23절]

성경 로마서 7장 21-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그러므로”(21절)라는 접속사는 20절 하반절에 있는 “...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는 말씀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속에 거하는 죄”(20절)란 죄의 세력, 즉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분 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란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18:20). 우리 주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시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두 세 사람이 모인 수많은 곳에 동시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주님처럼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탄 자신은 그리할 수 없지만 사탄의 세력은 그의 종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 21-23절에 “법”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한 법”(21절), “하나님의 법”(22절), “한 다른 법”(23절), “마음의 법”(23절), “죄의 법”(23절). 이 다섯 번 나오는 “법”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여기서 죄의 법[“한 법”(21절), “한 다른 법”(23절), “죄의 법”(23절)]이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하나님의 법”(22절), “마음의 법”(23절)]이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성경 로마서 7장 23절을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현대인의 성경)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7장 21-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꼭 승리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지체 속에서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23절).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체란 외부적은 눈, 귀, 팔, 다리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영혼에 속한 심리적 부분도 말합니다(박윤선). 즉, 육의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에서도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23절). 이 말씀은 죄의 법에 포로로 잡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의 법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까? 다시 질문하면, 우리를 죄를 지을 때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울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자신의 마치 죄의 종처럼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후반절에서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현대인의 성경)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는 가운데 선한 싸움을 하면서 새 찬송가 585장을 지었는데 그 가사 2절은 이렇습니다: “내 힘 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가 우리 힘 만 의지하면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 (2)

[로마서 7장 24-25절]

로마서 7장은 매우 어려운 장중에 한 장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야기인지 논란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의 이야기로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의 바울은 초신자였을까 아니면 믿음이 성장한 자였을까요? 성경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현대인의 성경)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에게 이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고린도 교회 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초신자라기 보다 믿음이 성장한 선교사로서 제 2 선교 여생을 떠나 고린도에서 3년 동안 있었을 때 로마서 편지를 썼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즐거워했던 “하나님의 법”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1)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로마서 7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 (2) 율법은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즉,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3)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생활 규범의 역할을 합니다[칼빈의 율법의 용도 3가지: (1) 정치적 용법: 죄의 억제(방지), 강제적인 작용, (2) 교육적 용법: 거울과 같은 용법, 인간의 죄인 됨을 고소, (3) 교훈적 용법: 가이드, 램프와 같은 역할, 성화로의 길잡이(인터넷)].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의 이중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22:37, 39)를 순종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롬 13:10하) “...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즐거워했지만(롬 7:22) 자기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인 하나님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았습니다(23절). 다시 말하면, 죄의 법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였기에 그는 죄의 법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인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했지만 죄의 법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했습니다(24절). 여기서 “곤고한 사람”이란 고통스러운 사람, 비참한 사람 또는 참혹한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 자기를 아직도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니 그 결과는 사망이었기에,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24절). 바울은 자기 자신 스스로 그 사망의 몸에서 건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기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없음을 알았기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비명/탄식을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볼 때 이러한 탄식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경건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까? 밤중입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입니까? 찬양을 드릴 때입니까? 과연 그 때에 우리가 흥도 없는 경건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수 없이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별수) 없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담대히 말했고(왕상17:1) 제 삼년에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말씀(18:1)에 순종하여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2, 17절).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울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19절), 도합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습니다(21-38절). 그리고 엘리야는 그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모조리 죽였습니다(40절). 그러자 이세벨 왕후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고 말했습니다(19:2).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고(3절), 한 로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4절).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로마서 7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없었고 또한 어느 누구도 그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없었기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비명/탄식을 했었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25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가 3장 15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옛 뱀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1)

[로마서 8장 1-4절]

성경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성자 하나님), 2절을 보면 “성령”(성령 하나님)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중 성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그의 아들”(1:2, 3)].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육신으로는”(3절)].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 여기서 “말씀”이란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1절). 독생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롬1:3).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습니다(마1:20; 눅1:69). 또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롬1:4).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오는 말씀과 연결시켜줍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어디서부터인지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21절부터 7장 25절과 연결시켜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세 성경 구절과 연결시킵니다: (1) (롬

5: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해서 전혀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을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8:1). (2) (롬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모두가 죄의 영향을 받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12절).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8:1). (3) (롬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미래 구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8:1). 이렇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란 전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성경 로마서 7장 25절 앞에 있는 모든 것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로마서 7장 24-25절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곤고한 사람”의 때나 “이 사망의 몸에” 있을 때가 아니라(7:24)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므로(5:6-8)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8:1).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 헬라어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복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구원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중 하나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5-6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바로 머리와 몸 비유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22-23절을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그의 총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세례 비유도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3-4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세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정죄하면 죄가 있는 것이고, 재판장이 정죄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무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연약한 자들, 죄인들, 원수 된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사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죄”란 단어가 로마서에 7번 나옵니다 [4번은 동사로, 3번은 명사로 나옴].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의 “정죄함”은 명사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 선물은 범죄 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룸이니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과거, 현재 또한 미래의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하심을 받았습니다(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사람

으로 여겨주심). 성경 로마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 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가 끝부분에 나오지만 원어를 보면 맨 앞에 나오고 또한 한국 성경에는 “없나니”라고 끝나지만 원어는 ‘없다’라고 써있습니다: ‘결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결코”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없다’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3-34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 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정죄하리요 ….” 어느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35, 39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롬8:1)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2)

[로마서 8장 1-4절]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중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3-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로다.” 아나니아가 그의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고 땅을 팔아 그 돈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가져왔는데 그 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네가 성령을 속였다’(3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로다”(4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롬5:5).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님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성령님의 전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피조물로서 어디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피조물로서 어디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2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피조물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주로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칠 때에 축도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축도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나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로마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영원부터 스스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은 생명이심. 성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4:6).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롬8:2). 성령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 성령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근거를 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그리스도 예수 안에”서(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5:6),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8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으므로(10절) 이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8:1).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근거로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으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한 마디로 전능입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게 적용하시사 우리 것에 되게 하십니다(우리의 죄 사함, 우리의 구원). “죄와 사망의 법”, 즉 죄와 사망의 힘(능력)도 대단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힘(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죄와 사망의 능력 아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2절). 성경 골로새서 1장 13-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능력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방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 가서 성령님의 열매는 완전히/온전히 충만하게 맺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3)

[로마서 8장 1-4절]

성경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국 성경은 “율법이”라고 시작을 하지만 원어 헬라어를 보면 “이는”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는”이란 접속사는 앞 구절인 로마서 8장 1-2절을 이어 받아서 자세한 설명을 소개하는 접속사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능력)에 사로잡혀 종노릇했었을 때에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였습니다(엡2:1). 즉,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했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불순종과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었습니다(2절). 즉,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2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2절)인 악령(사탄)을 따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4-5절).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5절).

사도 바울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8:3).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3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성경 로마서 8장 3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곧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능력) 아래 놓였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 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기에(5:10)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선 화목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이신 자기 아들을 그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자기 아들”(8:3)]. 여기서 자기 아들은 독생자를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나신 독생자이시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가 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15절; 갈4:6) 상속자가 되었지만(롬4:16; 8:17; 엡3:6; 딤후3:7)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이지(롬8:15, 23) 예수님처럼 독특한 관계가 되는 독생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십니다(롬3:25; 요일2:2; 4:10).

성부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물과 화목제물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롬8:3). 여기서 ‘보내셨다’라는 말씀은 독생자의 강림을 말합니다(강생하신 주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심에 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요1:14). 여기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1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롬1:3). 말씀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윗의 아들은 나단인데(눅3:31), 나단은 헛 사람 우리의 아내인 밧세바(삼하11:3)가 다윗에게서 나온 4명의 아들 중 한명입니다(시므아, 소밧, 나단, 솔로몬)(대상3:5). 예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인 나단의 후손입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을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기에(마1:18, 20) 죄가 없으십니다(히4:15).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히4:15)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롬8:3). 분명히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과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은 그 육신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로마서 8장 3절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피곤하셨고(요4:6), 시장하셨습니다(막11:12).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히4:15). 그러나 넘어지지 않으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15절).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육신으로 탄생하셨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이 성자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하셨습니다[“육신에 죄를 정하사”(롬8:3)].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

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현 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죄하시되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리시기까지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시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삼으시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영생을 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종계명대로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마22:37, 39).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4)

[로마서 8장 1-4절]

성경 로마서 8장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현대인의 성경)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한번만 가지는 속죄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아론)(3절) 1년에 한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속죄제물인 숫염소 두 마리를 선정해서(5절)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7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했습니다(8절). 여기서 “아사셀”이란 “떠나다”(“아잘”)와 “염소”(“에즈”)란 말의 합성어로 “떠남”, “보냄”의 의미인 듯합니다. 또는 “멀리 떠나보냄, 완전한 제거”라는 의미인 듯합니다. “아사셀”은 속죄염소로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쫓겨난 염소를 상징하므로 제사장이 산에 올라 염소가 멀리 사라진 것을 확인하면 대제사장은 ‘너희 죄가 사라졌다’고 선언을 했습니다(인터넷). 성경 시편 103편 12절을 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성경 이사야 38장 17절을 보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성경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대제사장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냈습니다(9-10절).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단번에 죽여 그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립니다(15절). 여기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바치

는 것이며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단번에 피를 흘려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곧,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 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인터넷).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대제사장 아론이 그 염소 머리에 두 손을 얹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지운 다음 지정된 사람에게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21절). 그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이르면 그 염소를 놓아 주었습니다(22절). 여기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란 사탄 마귀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바치는 것이며 죄의 존재와 영향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곧,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을 의미합니다(인터넷).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4:8, 16).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롬5:6),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8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10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요일4:10)로 세상의 구주(14절)로 이 세상에 보내시사(9, 10, 14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엡 2:4, 5).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밖에 없었는데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원(롬8:1), 성령 하나님의 구원(2절), 성부 하나님의 구원(3-4절)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현대인의 성경)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여기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엡2:2).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한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란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삶으로서(1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3절, 현대인의 성경).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롬8:1-3)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받은 우리는 이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4절). 우리는 육체의 일을 행하지 말아

야 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여기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 22-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롬8:4,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중계명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 로마서 13장 8-10절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고(롬8:1),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2절)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우리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사 채워주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사랑의 열매를 계속 맺으십니다(갈 5:22).

지금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마24:12). 지금 많은 사람이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구원의 사랑으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롬1:16).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시55:1, 16-18).

성령의 생각

[로마서 8장 5-8절]

성경 로마서 8장 5-8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육신”(5번)과 “영”(3번)입니다. 여기에서는 5절과 6절 말씀만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5-6절을 보면 “...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영을 따르는 자”란 ‘성령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며 “영의 생각”이란 ‘성령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2) 성령님의 일은 무엇인가? (3) 성령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첫째로,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3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했던 사람이란 성령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던 때로서(롬5:12) 죄와 사망에 속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2)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옛 사람”이란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죄의 사망의 법아래 있었던 사람을 가리킵니다(8:2).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인 옛 사람이었을 때인 육신에 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아래 있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므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어(6:7)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19절).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옛 사람,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0-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다시 속죄제나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3)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0-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 에

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한 마디로,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거듭난 자
또는 중생한 자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성경 로마
서 8장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니”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성령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육신에 속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까? 과연 우리
는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새 피조물(새사람)이 되었습니까? 과연 우리는 성령님
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신을 따르고 있습
니까?

**둘째로, 성령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행하
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
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
심으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 스
스로 오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
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중생케)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거룩케 하시사
(성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
끌어 세우시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파송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파송하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도 하실 것이요 또한 그 보다 큰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복음을 제한된 지역에서만 전하셨지만 성령님은 예를 들어 바울을 통해서만도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여기저기에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합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방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서는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요14:12).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 셋째로, 성령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롬8:2). “생명”이란 이 3가지입니다: (1) 생명이란 하나님과 감미로운 교통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감미로운 교통을 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었습니니다. 그러나 그가 언약의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2) 생명이란 마음속의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3) 생명이란 하나님의 총명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롬5:2),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세계를 이룰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생명(영생)입니다. 그러면 “평안”(8:2)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평안(또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현대인의 성경) “그

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에 평안(평화)이 없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만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빼앗지 못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서는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오셔서 평화를 누리셨습니다. 우리도 환경이 좋아서, 건강해서, 모든 일이 잘 되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근심된 일과 곤고한 일과 최악 된 일과 죽은 일이 쌓였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새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맘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총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입니다(새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평화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화목)하여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서 이웃과도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평화의 사역을 잘 감당하길 기원합니다.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5-8절]

성경 로마서 8장 5-8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이란 말씀이 세 번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5절), “육신이 생각은 사망이요”(6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7절).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란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육신이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 인류의 사람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범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죄의 오염되어 타락을 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타락한 사람을 가리켜 “옛 사람”이라고도 합니다(롬6:6; 엡4:22; 골3:9). 육신이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이란 거듭나기 전에 사람 또는 중생하기 전에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육신의 속한 자(고전3:3; 참고: 히7:16) 또는 육신을 따르는 자(고후5:16; 11:18)라고 말합니다. 육신이란 궁극적으로 사탄을 말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5-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이 단어가 4번 나옴)과 “영”(이 단어가 3번 나옴)을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육신”과 대조를 이루는 “영”이란 우리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과 ‘성령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이 “육신”을 그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지 않는(또는 중생하지 않은) 우리 옛 사람을 가리킨다고만 말하면 ‘성령님’과의 대조를 잘(충분히)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이신 성령님과 대조를 이루는 “육신”이란 궁극적으로 ‘사탄’을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육신”과 “영”, 즉 사탄과 성령님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중생하지 않은) 불신자들 안에 사탄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사탄이 하나님처럼 어디에나 있는 무소부재한 것이 아니기에 그와 한통속인 악한 천사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롬8:5)란 사탄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고 그 악한 천사들을 따르는 자란 말입니다. 즉, 육신을 따르는 자는 궁극적으로 사탄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육신을 따르는 자는 마귀에게 순종하여 세상의 악한 길을 따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현대인의 성경)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탄과 악한 천사들을 따라다니는 자입니다.

(2)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중생하지) 못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 사탄과 악한 천사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심지어 직분자가 되어 열심히 섬기는 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자신이 중생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는 자신이 어떤 중생했는지 모르는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자신이 중생한지 모르는 것’하고 ‘자신이 중생하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로 모태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중생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육신의 일”(롬8:5)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의 일은 무엇입니까?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즉 옛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 육신의 일을 죽이는 일입니다.

사탄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일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므로 궁극적으로 그 두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게 만들었음). 그 결과 사탄은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탄의 일을 죽이는 일이라면, 성령님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육신의 일은 화평(평화)을 깨는 일입니다. 사탄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의 화평을 깨고 불화를 이루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9-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분명히 남편 아담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자기의 아내인 하와를 가리켜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는데(2:23),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3:12)라고 자기 아내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일은 가정의 화평(평화)을 깨고 불화를 일으키므로 가정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그러나 성령님의 일은 화평(화목)케 하는 일
이요 화합하는 일입니다.

(2) 육신의 일은 모든 죄를 범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5:19-21).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행 하는(16절) 예수님을 믿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22-23절).

셋째로, “**육신의 생각**”(롬8:6, 7)은 무엇입니까?

(1)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성령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현대인의 생각)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요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2)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평(이것은 성령님의 생각임)이 아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3)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하나님과 원수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진 중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4)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8절을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생각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어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창5:24). 현대인의 성경은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

누며 사는 자였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도 “전에”,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따라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생한 새사람으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믿음의 조상 에녹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성령님의 생각 속에서 성령님의 일을 하므로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일이란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5:22-23)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마22:37, 39).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새 찬송가 438장 3절)(육신의 일이란 사탄의 열매인 미움을 맺는 것이요 그 결과는 불화와 화평을 깨므로 결국에는 죽음/사망임).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이중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생명(영생)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사랑하면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는 성령의 사람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새 찬송가413장).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9-11절]

성경 로마서 8장 9-11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란 단어가 6번 나오는데 5번은 성령님을 가리키고(9절에 3번, 11절에 2번), 1번은 사람의 영을 가리킵니다(10절). 성령님을 가리키는 9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성령님)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9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성령님)으로 말미암아 …”(11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 아래 성경 로마서 8장 9-11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 여기서 “만일 너희 속에”에서 “너희”라는 단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지만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일 포함시켰다면 “우리”라고 말했을 것임). 그렇다고 사도 바울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우리”란 사도 바울 자신과 디모데후서 편지를 받는 디모데를 가리킵니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양자의 영”이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경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성경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한 성경 요한일서 4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4-5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열매란 성령님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 또한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0절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란 말씀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는 말씀에서 “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몸”(육체)과 “영”(영혼)이 연합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란 곧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첫 사람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창2:16-17)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 열매를 먹으므로(3:1-7) 죽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사람들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 성경 로마서 8장 10절을 보십시오: “…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은 사람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영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몸과 영혼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므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케/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화목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시고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또한 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렸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성경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십시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성경 로마서 8장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다시 사실 것(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참고: 마17:9; 20:19).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40-4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겔 사람)도 살리실 것입니다(롬8:11).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몸의 부활), 우리의 몸도 다시 살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성경 요한복음 6장 39-40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좋고/복되고/유익되고, 죽어도 좋고/복되고/유익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 성령님이 그의 안에 거하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사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또한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1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 복을 누리야 합니다. 우

리는 귀한 신앙으로 고난을 잘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비에 적혀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진 자들

[로마서 8장 12-13절]

성경 로마서 8장 12-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우리가 빛진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지고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빛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2절). 온 인류가 빛진 자들입니다. 과거의 사람들, 현재의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사람들 모두 다 빛진 자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에 빛진 자 혹은 영에게 빛진 자.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육신에 빛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기 전(중생하기 전)까지는(요일5:1, 4) 육신에 빛진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에 빛진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성경 에베소서 2장 2-3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현대인의 성경)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빛진 자들이었을 때에는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되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에 빛진 자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영에 빛진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 영에 빛진 자가 되었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모태 때부터 영의 빛진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임신한지 6개월이나 된 엘리사벳(36절)에게 문안했었을 때 “아이(세례 요한)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41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언제 자기가 성령 충만했는지 확실히 몰랐겠지만 장성해서 그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모태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중생했는지, 언제 영에 빛진 자가 되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언제 영에 빛진 자가 되었는지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성경 사도행전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24절)은 알았고, 베드로와 “옴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23절)도 그들이 영에 빛진 자들인지 알았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44-4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영에 빛진 자는 성령님에게 빛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8장 12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구절들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1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기에(2절)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는(4절,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므로(5절, 현대인의 성경)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6절).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그 성령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으로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11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빛진 자들입니다(12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형제들”(롬8:12):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형제들”이란 친밀한 애칭으로 바울은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다 영에 빛진 자들, 즉 중생한 자들이요, 성령에 빛진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영에 빛진 자들이요 성령에 빛진 자들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6절).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6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7절)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8절). 영에 빛진 자들은 그 영이 살아있습니다[(10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영에 빛진 자들은 중생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장인 아이로(눅8:41)의 죽은 딸(49절)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므로(54절) 그녀를 다시 살리셨는데 성경은 그녀가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을 “그(녀의) 영이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5절). 죽었던 나사로도(요11:14)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에 가서서(38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후(39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을 때(43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44절). 나사로도 그의 영이 몸에 연합이 되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의 영이 돌아와서 신체와 연합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성령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셨습니다(엡2:1). 이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이데(롬8:6)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되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리실 것입니다(13절). 언제?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입니다(고전15:52, 현대인의 성경). 그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든 변화될 것입니다(52절,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몸을 영원히 살도록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8:12).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빛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 골로새서 3장 5-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는 영(성령님)에 빛진 자들로서 이렇게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면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갈5:16). 또한 사도 바울은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8:13). 비록 육신에 빛진 자로서 살 때는 반드시 영원히 죽을 것이지만 영(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육신에 빛진 자로서 사는 것)을 죽이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빛진 자로 살 때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살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입니다(살전4:16). 그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16절). 즉,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롬8:9)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열매를 맺으시며, 승리케 하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므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주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몸과 영을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1)

[로마서 8장 14-17절]

성경 로마서 8장14-17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3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1) 하나님의 아들(14절), (2)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음(15절), 그리고 (3)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16절).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무릇”이란 13절 하반절의 “살리니”(살리라 = 영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문장을 소개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4가지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 사람들은 (1) 하나님의 아들이요(14절), (2)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요(15절), (3) 하나님의 자녀들이며(16절) 또한 (4)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17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 성령님은 큰 사건이나 큰 일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롬8:4) 매일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를지라도 지나고 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도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께서서는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27절)가 타고 있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29절). 그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빌립은 순종하되 그 수레로 달려갔습니다(30절). 성경 사도행전 10장 20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9절) 환상을 본 사도 베드로(10-16절)에게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들(17, 19절)과 함께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20절).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사도 베드로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23절). 성경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바울)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3절). 성경 사도행전 16장 6-7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지라.”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막으시사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유럽)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막으심과 여심(인도하심)에 사도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제 욕심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를 따릅니다. 신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 상처를 받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아버님에게 대한 미움과 원망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자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진리를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진리를 자녀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므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진리를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리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나의/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되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사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형벌하셨음. 즉,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자녀)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2)

[로마서 8장 14-17절]

성경 로마서 8장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무엇인지 또는 누구인지 여러 학설이 있지만 3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 종의 영이나 양자의 영은 우리 사람의 영을 말한다는 학설과 (2) 종의 영은 악령이고 양자의 영은 성령님이라는 학설과 (3) 종의 영이나 양자의 영 둘 다 성령님을 말한다는 학설입니다. 저는 세 번째 학설인 ‘종의 영이나 양자의 영 둘 다 성령님을 말한다’를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 번째 학설을 지지하는 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의 영”(15절)도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했을 때(행2:14-36) 그 복음을 들은 청중의 반응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했습니다(37절). 이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롬8:15)이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케 하셨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3,000명의 사람들이(행2:41)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깨닫게 되어 두려워서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한 것입니다(행2:37).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38-39절). 그 결과 그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아 신도가 되었습니다(41절). 이렇게 종의 영이신 성령님께

서는 먼저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신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 또한 스테반을 통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000명의 신도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지 않고(2:37) 그들은 스테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7:54). 이들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롬8:15)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기에 도리어 일제히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밖으로 끌어낸 후 돌로 쳐 죽이는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행7:57-58). 그 때 예수님을 믿기 전인 사울(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바울)도 그들과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함께했습니다(58절). 사울(바울)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인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죄악을 많이 범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 1, 3절과 9장 1-2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지난날의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에 거하고 있습니까? 만일 아직 그러고 있지 못하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사 주님을 영접케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양자의 영”(롬8:15)도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양자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양자의 영으로 보내시사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15절)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17절). 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되 성자 예수님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감사 충만, 기쁨 충만, 평강 충만, 능력 충만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3)

[로마서 8장 14-17절]

성경 로마서 8장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16절).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속성/성품이란 한 3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은 성령님을 가리켜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성령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성경 시편 139편 7-8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기에도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피조물이기에 어디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침투하려고 하긴 합니다. (3)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a) 창조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2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b)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15절). (2)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14-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성경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입니다. 그 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13절). 하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14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3) 하나님은 만물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사십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십시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도리어 만물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호흡도 주십니다. (4)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며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창12:7).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26:3).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본

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28:13).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약 2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8절)으로 인도하게 하시되 모세는 요단강까지 간 후 하나님께서 불러 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사 결국에는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21장 43, 4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담은 이 하나님의 행위의 언약(the covenant of works)을 어겼습니다(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은혜의 언약(the covenant of grace)을 맺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이미”(already) 성취].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아직도”(not-yet) 성취]. 여기서 “이루었도다”는 공동번역과 King James 번역과 중국어 성경 번역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이루셨고(“이미”),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다 이루실 것입니다(“아직도”).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십시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6-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iero다 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 찬송가 370장(“주 안에 있는 나에게”) 4절과 후렴 가사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만 따라가리.”

진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며 또한 마침내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아빠 아버지이시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므로 결국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로마서 8장 14-17절]

성경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면 “상속자“(17절)란 누구입니까?

첫째로,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33-39절을 보면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보면 집 주인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다가 결국에 가서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하였지만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은 상속자인 집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 비유에 집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며, 상속자이신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 받을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인자이신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31-33절). 주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양)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34절).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아버지 하나님을 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1-12절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한 근원”이란 예수님이나 우리 성도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성도들은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8:17). 여기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란 우리 성도들이 받을 유업인 영광을 말씀합니다. 이 영광은 장차 내세에 가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누릴 충만하고 완전한 영광입니다. 새 찬송가 85장 1절을 보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또한 이 영광은 현세에서도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영광으로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영광을 누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롬8:17). 성경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

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어야 할 많은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빌1: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9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 찬송가 310장 3절을 보십시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앞서 간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즐거워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41-42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뭇을 당하고(3절),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와 위협을 당했지만(17, 18, 21절) 그들은 복음 전함을 그치지 않았습니다(33절; 5:42).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세상의 국법하고 하늘나라의 국법하고 다름.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써 이 세상에서 환영과 존경을 받기보다는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이러한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을 각오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므로 잘 감당하고 잘 이겨 나아가면서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치지 않고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며 견져주시며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은혜로 여기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고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들처럼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

라도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세에 들어가 총만하고 완전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 충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1절)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2절)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써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은 뵈옵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3절) 앞서간 친구를 만나 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후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뵈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 일세 아멘.

[새 찬송가 610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로마서 8장 18절]

성경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현재의 고난과 (2) 장래의 영광.

첫째로, 현재의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란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란 이 세상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새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를 보면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과 곤고한 일과 죄악 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2) 그리스도 밖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만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받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현대인의 성경) “신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언제나 믿음에서 살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고 하였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고난의 연속이 아닐 수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7장 4-14절을 보면 144,000명이 나옵니다(4절). 이 숫자를 사도 요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했습니다(9절).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9절)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을 드립니다(10절). 이들은 누군가하면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그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빌1:29).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킵니다(영적으로 성장 및 성숙시킴). 성경 로마서 5장 3-4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고난은 우리 각자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시기에 고난이란 복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고난을 견디며 마침내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장래의 영광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래’(“장차”)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오는 세상인 내세, 즉 천국/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영광”은 무엇입니까?

(1)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사람은 영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살리시되 영광스러운 몸과 강한 몸과 영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고전15:43-44,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빌3:21, 현대인의 성경).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여(살전4:16, 현대인의 성경) 그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과 천국에 있던 영이 연합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2)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한 성경 빌립보서 2장 9-1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임금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 우리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8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입니까.

(4) 우리가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롬8:18).

성경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난을 받았는가 하면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습니다(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롬8:18).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란 ‘순간’이란 뜻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난”(고난)을 “잠시” 즉 순간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받은 환난은 “경한 것” 즉 중량(무게가)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장차 그가 받을 “영광”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은 “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한 것”이란 영원한 중한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조차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하되 그는 틀림없는 장래의 영광이 확실한 것이기에[“생각하건대” (롬8:18)]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을 잘 견뎌내며 또한 잘 이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의 고대”

[로마서 8장 19-22절]

성경 로마서 8장 19-22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첫째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피조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창1-2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창1:1)께서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창조하셨습니다(31절). 그러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조물”이란 어떠한 피조물입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천사들이 있고, 천공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들 등이 다 있고, 땅에는 모든 짐승들과 나무들 사람들 등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조물”은 어떠한 피조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피조물이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좀 달리 말하면, 자기의 생각 등을 표현할 수 있는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피조물”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또한 말할 수 없는 피조물들(예를 들어, 나무들, 물고기들 등등)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0절). 여기서 “자기 뜻”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피조물들은 생각도 없고 뜻도 없는데

무슨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자기 뜻”이란 피조물들이 자기들이 자원해서 (willingly)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이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로 하여금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시사 그것을 통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18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족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18절; 참고: 고후4:17). 시간적으로 족히 비교가 안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요 순간적인 반면에 장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고후4:17). 무게로도 족히 비교가 안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가벼운 고난인 반면에 영원한 영광은 지극히 크고 중한 것입니다(17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빌1:29)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벧전4:14,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굴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창조된(창1:31) 그 피조물(롬8:19)인데 어떻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입니까?(20절)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17-18절에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2:17)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3:17).

사도 바울은 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8:22).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19절). 이것은 그 피조물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는 것입니다(18절).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을 저주 하시면서도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19절).

마지막 둘째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로마서 8장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17절 말씀에 근거해서 크게 2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첫째 그룹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입니다(살전4:14).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14절)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16절).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로서 그들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있고, 그들의 몸은 흠으로 돌아갔습니다. (2) 둘째 그룹은, 아직 몸이 살아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몸이 살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중생한 영혼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장차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처럼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2 그룹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하는바인데 그 이유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때문입니다(롬8:18-19).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살전4:16) 또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14절)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16절, 현대인의 성경).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땅에서 썩은 몸과 천국에 있는 그들의 영혼과 연합하여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욱되지 않는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고전15:52-53).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살전4:17)은 홀연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고전15:51). 변화되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52-53절). 성경 빌립보서 3장 20-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천한 몸”)인 썩을 몸, 욱된 몸, 약한 몸, 육체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일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우리가 항상 천국에서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살전4:16-17). 그 때에 그 피조물들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롬8:18-19).

성경 요한계시록 5장 13-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앞드려 경배하더라.” 천상에는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24개의 좌석에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으며(4:4), 네 생물도 있으며(4:8; 5:8; 19:4),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각자 거문고와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5:8, 현대인의 성경)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19:4, 현대인의 성경).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짐승인 사단의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끝까지 모든 핍박과 환난을 견뎌낸 최후의 승리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15:2)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3절). 장차 승리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즉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3절). 그리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외칠 것입니다(5:13).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롬8:18)을 고대(19절)해야 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시42:1) 우리의 영혼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다가 영광중에 주님을 뵈옵고 천상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 경배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로마서 8장 23-25절]

성경 로마서 8장 23-25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입니다(23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언제 성령님을 첫 열매로 받았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보면 우리 모두(전 인류)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참고: 창3장). 이러한 죄인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대속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종생(거듭남)케 하셨습니다(엡2:1).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5절).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첫 열매로 받았습니까(과거 구원).

둘째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성경은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성경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망(희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소망(희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은 구원의 방도(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의 방도(수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롬8:24)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롬8:23).

우리는 “이미”(Already) 양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5-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장차[“아직도”(Not-yet)] 양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몸의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로마서 8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비록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에(중생했기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고전15:52,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51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52절).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

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 빌립보서 3장 20-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경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몸의 속량(롬8:23)이란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으로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18절)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우리 몸의 속량인 미래의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립니다(롬8:23).

둘째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롬8:24-25).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24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소망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예: 부자가 되는 소망, 건강을 소망, 권력과 명예를 소망 등등). 성경은 이러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4절).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소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25절).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에(고후5:7, 현대인의 성경)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소망자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더욱더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성령님으로 인해 이 영광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기에 더욱더 사모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것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히 11:16).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면서 소망해야 합니다(롬8:23).

자녀를 해산하는 산모는 임신해서 산기가 다 되었을 때 장차 태어날 귀한 생명인 아기를 소망하기에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를 하면서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이와 같이 장래의 영광을 참으로 믿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속으로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소망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참음으로” 소망해야 합니다(롬8:25).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어떠한 현재의 고난(롬8:18)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고 견디되 끝까지 참음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므로 주님과 함께 소망의 나라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영광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로마서 8장 26-27절]

성경 로마서 8장 26-27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누구를 도우십니까?

성령님은 이미 양자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롬8:15).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16절). 성령님이 도우시는 우리는 이미 양자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17절). 성령님은 장차 양자될 우리, 즉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서 “우리 몸의 속량”(23절)이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11절). 살리시되 성령님께서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며 우리는 모든 변화될 것입니다(고전15:52, 현대인의 성경).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 할 것입니다(살전4:16, 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도우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롬8:26). 우리는 몸과 마음이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건하게 지으셨지만 첫째 아담의 범죄로 약해졌습니다. 예수님도 몸이 연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셨을 때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막4:37).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38절). 예수님께서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몹시 시장하셨습니다(마4:2).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이 연약하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만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약하고 우리의 결심도 얼마나 연약한지를 좀 철저히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새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3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 우리는 심지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 할 수가 있습니다(고후12:9). 우리가 약할 때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9절). 우리는 우리가 연약할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마4:4, 7, 10).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롬8:26).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말합니다. 호흡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호흡인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다 못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끄끙거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26절).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고전9:26).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히 간구하십니다(롬8:26, 27).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히7:25)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살전 5:17)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시간을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기도, 새벽기도, 수요일기도, 중보기도, 금식 기도 등등) 제 개인적인 제안은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도 호흡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영적 호흡인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수 없이 가져야합니다. 특히 권면하고 싶은 찬양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에벤테셀). 지금도 또한 앞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날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약할 때 간구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로마서 8장 28-29절]

성경 로마서 8장 28-2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에는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 말씀은 구원이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상 제목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정했습니다.

첫째로, 성경 로마서 8장 28-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로마서 8장 28-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18절)로서 영생(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란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변화하여 천국에 들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28절)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도 없이 사는 자들(엡2:12,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주기도문)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요일 4:19)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롬8:28).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요, 우리가 구원(영생)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롬5:5, 현대인의 성경). 성경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부모님이나 자녀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롬8:28)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부르심”(또는 ‘소명’)이란 2 종류가 있습니다: (1)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2) 유효적 소명(효과적인/효력 있는/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능히 우리를 권하여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이다”(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0장 효과적인 부르심(유효소명)을 보십시오: “1.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만을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정하신 적당한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롬 8:30, 11:7; 엡 1:10,11). 이는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것으로서(살후 2:13; 고후 3:3,6) 그들이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딤후 1:9,10; 롬 8:2; 엡 2:1-5).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깨우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깨닫게 하시며(고전 2:10,12; 행 26:18; 엡 1:17,18), 돌과 같이 굳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시고 살과 같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겔 36:26).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며(빌 2:13; 신 30:6; 겔 11:19, 36:27), 그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신다(요 6:44,45; 엡 1:9).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극히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된다(시 110:3; 아 1:4; 요 6:37; 롬 6:16-18). 2.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을 미리 보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딤후 1:9; 롬 9:11; 엡 2:4,5,8,9; 딤후 3:4,5). 인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고전 2:14; 롬 8:7; 엡 2:5) 소생하여 새롭게 된 후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며(겔 36:27; 요 5:25, 6:37), 그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일 따름이다.”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혼인 잔치 비유를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2절)이 그 종들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하였지만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3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고 했지만(4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다들 자기들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5절). 심지어 그 종들을 모역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6절).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르심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말했습니다(8-9절). 그래서 그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10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았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11절)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13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14절). 즉,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유효적인/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택함을 입은 자”)은 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롬8:28) 또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요(29절) “미리 정하신 그들”입니다(30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인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29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30절)(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30절). 구원의 완성인 영생(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8절). “그의 뜻대로”(롬8:28)란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란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은 한 마디로 구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고(엡2:1, 현대인의 성경) 또한 영원히 형벌 받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는 구원,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는 말씀에서 “모든 것”이란 우리의 일평생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여기에는 우리의 죄도 포함함).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채찍질)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하시는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히12:5-8). 우리는 징계받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합력하여”란 ‘합해서’란 의미입니다. 또는 ‘융합해서’[의미: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듦. 또는 그런 일”(사전)]란 말입니다. “선을 이루느니라”란 말씀에 “선”이란 최고의 선으로서 구원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심지어 우리의 죄까지 사용하심)을 합력하여(합해서/융합해서) 결국 최고의 선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므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벧후1:10). 그리고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고전15:5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구원 (1)

[로마서 8장 29-30절]

성경 로마서 8장 29-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은 하시나니”입니다(3절). 즉,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이신 독생자(성자 하나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3절). 성경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요1:1).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14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자손(혈통)인(롬1:3)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되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마1:18). 그러시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롬8:3)라는 말씀은 죄는 없으신데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는 의미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시지 못하시면 피곤하셨고(막4:38), 마시지 못하시면 목이 마르셨

고, 식사를 못하시면 시장하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
다.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마4:1-11). 그 외에도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많
이 받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
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
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독생자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도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 때 시험하는 자인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유혹)에 말씀으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로마서 8장 29-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란 넓은 의미에서 구원을 말
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창1:27). 그
리고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셨습니다(2:8). 그
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16-17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17절). 그러나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습니
다. 그러므로 사망(죽음)이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죽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영적
죽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
은 하와와 함께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3:23). (2) 육체적 죽음: 아담은 930세에 죽었
습니다(5:5). (3) 영원한 죽음: 아담이 930세에 죽었을 때 그의 몸은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
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몸은 무덤에서 부활하고 영과 몸이 연합이 되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
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구원은 영적으로 구원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러기
위해선 짐승을 잡아서(피를 흘려서) 짐승의 가죽을 말려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를 입히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더러운 모든 것을 다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

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을 입히시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담의 몸은 무덤으로 갔지만 아담의 영혼은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있는 그의 영혼과 무덤에 있는 그의 시체가 부활하여 영혼과 연합하여 천국에서 영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롬5:12).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로서(엡2:1) 영원히 형벌을 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유월절 어린양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롬4:25).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8:29-30).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했지만 성경은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사를 사용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4-6절을 보십시오: “금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하늘에 앉히시니”란 말씀 또한 과거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는 것’ 이상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1-23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실진대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짓 선지자들(15절)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에서 떠나갈 것입니다(23절). 즉, 그들을 멸망할 것이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 아모스 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족속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속만 아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까지 범한 모든 죄를 아시고 보응하시겠다(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치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히12:5-6).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롬8:29)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연약하여 시험하는 자인 사탄에게 시험에 들어 죄를 범하고 나서도 회개치 않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히12:5-6).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이 진리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넓은 의미를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굉장하지 체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성경에서 배우고 듣는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한 영혼 영혼을 구원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2)

[로마서 8장 29-30절]

성경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국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29절이 시작을 하지만 원어 헬라어를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란 성경구절 맨 앞에 “For”(ὅτι)이란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앞 절인 28절의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전치사로서 제 생각에는 28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29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무엇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28절에서 말씀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요일4:19)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선”)을 이루신다는 28절의 말씀을 바울은 2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롬8:29)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28절)로서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말씀합니다(참고: 암3:2).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4:8, 16). 사랑의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말을 사랑하십니다(일반적인 사랑). 그러나 로마서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란 그러한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구원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영생(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요3:16).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창세전에”)하신 사랑입니다(엡1:4). 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으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그 선택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 “미리 정하신 그들”[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현대인의 성경)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롬8:29). 여기서 “형상”이란 모양이란 의미로서 원어 헬라어의 뜻은 ‘유사하다, 모습, 닮는다’란 의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15-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함정)에 빠뜨리려고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물어보게 했습니다(15-16절): “...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17절).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간교한 생각으로 자신을 시험하심을 아시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랴”고 말씀하셨습니다(18-19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께서서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19-20절). 그들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즉,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모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21절). 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이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이 땅에서 33년 계셨던 연약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사[“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롬8:29)] 택하시고 예정하신[“미리 정하셨으니”(29절)](엡1:4-5)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롬8:29).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될 것입니다[(영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30절)]. 지금은 성령님께서서 우리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계십니다(성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8:29)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29절)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29절). 여기서 “많은 형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이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제자”는 스승(선생)과의 관계에서의 제자를 말하지만, “형제”는 가족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의 관계가 지금 여기 지상에서는 제자 및 형제의 관계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 및 변화 받아 천국에 들어가서는 온전히 형제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형제 관계가 되는 것은 내세인 천국에 가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구원의 완성과 더불어).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영화롭게 될 것(30절), 즉 천국에 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맏아들”(롬8:29)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으뜸’이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신 분이십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9-11절은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허물로 죽은[“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엡2:5-6). 성경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확실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장차 받을 영광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3)

[로마서 8장 29-30절]

성경 로마서 8장 29-3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5과정입니다: (1)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2)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다, (3)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4) 하나님께서 의롭다하신다, (5)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입니다(롬8:29).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말씀(29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마 7:15ff.; 암3:2; 히 12:7).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삼위간에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과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다’입니다(롬8:29, 30).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엡1:4)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롬8:29). 여기서 그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이란 이 낮은 세상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연약한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형상을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34절).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히1:3, 8:1, 10:12, 12:2)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롬8:29).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고전15:52, 현대인의 성경), 즉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살전4:16)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되(16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고전15:52), 그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살전4:17)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고전15:51)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살전4:17).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구원의 완성, 영생) 새 하늘과 새 땅인(계21:1)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2절)인 하늘나라에 들어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19:9)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신(택하신) 사람인 야곱을 보십시오. 성경 로마서 9장 11-13절을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그 자식들”이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한(10절) 에서와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여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였고(창25:21) 마침내 그의 나이 60세 때 쌍둥이(24절)인 에서(25절)와 야곱(26절)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롬9:11) 야곱을 사랑하시되 특별한 사랑인 구원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에서는 그 특별한 구원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미워하였다”)(13절). 이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리 아시고(사랑하시고) 그를 정하신(택하신) 것은 야곱이 “아직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야곱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롬9:11, 현대인의 성경). 즉,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11절). 여기서 ‘서

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은 ‘계속하다, 유지하다, 그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목적)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시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반드시 서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전에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창세전에) 정하셨습니다(선택하셨음)(롬8:29).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칭의),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30절).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마6:10, 현대인의 성경). 즉,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이미(Already)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는 아직도(Not yet)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살전4:16). 그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천국에 오라하실 때에 주님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4)

[로마서 8장 29-30절]

성경 로마서 8장 29-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구원의 5단계를 다시금 복습합니다: (1) 첫째 단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2) 둘째 단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 구원하십니다. (3) 셋째 단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유효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4) 넷째 단계: 하나님께서 의롭다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5) 다섯째 단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은 셋째 단계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유효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제10장 효과적인 부르심(유효소명)]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핵심 교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만을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정하신 적당한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롬 8:30, 11:7; 엡 1:10,11).”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 즉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롬8:29, 30)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은 창세(만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2) 이는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것으로서(살후 2:13;

고후 3:3,6) 그들이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딤후 1:9,10; 롬 8:2; 엡 2:1-5).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십니까? 바로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부르시는데 성령님께서 말씀(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행26: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고전2:10, 12)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엡1:17-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복음)을 받게 하심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겔11: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겔 36:26-27)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신30: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빌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말씀(복음)과 성령님을 통해 부르십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입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뱀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디다”](시51:5).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말은 우

리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를 말합니다(엡2:1, 현대인의 성경). 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었더니.” 그 때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또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즉,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때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중생)[(딤후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회개케 하시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롬8:15). 그리고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사(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재림)에 우리를 부활케 하시사/ 변화시키시사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효과적인(유 효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30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보십시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14 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사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위대로(선행으로) 하심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 버리시고 기쁜 소식(복음)으로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성경 에베소서 2장 4-5절을 보십시오: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

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큰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1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바 되었고(중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사랑하신) 자들, 미리 선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올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효과적(유효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중생), 회개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활연히 변화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효과적(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성령님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살전1:6).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2:13).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13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속에서[복음의 합당한 생활(빌1:27)]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택하신 그 양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요10:16,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재림) 다 영화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5)

[로마서 8장 29-30절]

성경 로마서 8장 29-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구원의 5단계 중 넷째 단계인 하나님께서 의롭다하신 자들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의롭다 하시고”(30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33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 예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거저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요 다 죄가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받아주시심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imputed)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칭의)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only by faith).

기독교에는 3가지 “전가”가 있습니다:

(1) 아담의 죄의 전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6장 3): “그들은 모든 인류의 기원이었기 때문에 이 죄의 책임은 전가되었는데, 그들로부터 일반적인 출산에 의해 내려오는 모든 자손들에게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 타락한 본성도 전달되었다.” 첫째 아담이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므로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첫째 아담의 원죄(original sin)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에 오염이 되었고 부패되었습니다(전적타락). 성경 시편 51편 5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뱀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2)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십시오: “...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씀은 ‘전가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전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되

체험적으로도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셔서(전가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증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3)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11장 1):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데,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떠한 노력의 결과나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믿음 자체, 즉 믿음의 행위나 다른 어떠한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에게 의로 전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배상을 그들에게 전가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믿음에 의해 그분과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수 있다. 이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 로마서 3장 21-22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말씀)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는 “의롭다 하시고”(8:30)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행하심을 심사하시고(살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함”이란 “칭의”의 반대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옮기시므로(전가하시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대해주십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양자”(adoption)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의 서정(순서)을 보십시오: (1) 소명, (2) 중생, (3) 회심, (4) 신앙, (5) 칭의, (6) 양자 혹은 입양, (7) 성화, (8) 견인, (9) 영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4문: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답: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롬8:15; 갈4:6).

성경 로마서 8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하시사(29절)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양자)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맏형님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아우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되게 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기에 취소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의문/의심 들게 만들려고 하고 불신케 하려는 모든 유혹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6)

[로마서 8장 29-30절]

성경 로마서 8장 29-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구원의 5단계 중 마지막 다섯째 단계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들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동사는 과거사입니다(이미 이뤄진 것을 말함).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100%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과거 동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넉넉히 구원의 5단계를 이루실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5단계의 동사들을 다 과거사를 사용했습니다(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그들, 부르신 그들, 의롭다 하신 그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영화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중심으로 영화가 무엇인지 한 4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화란 구원을 가리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 즉 의롭다하심(칭의)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장차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장차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를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즉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칭의를 받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살아날(부활할) 것입니다.

둘째로, 영화란 하늘에 기업을 상속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의롭다하심(칭의)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것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기업)을 우리가 상속 받을 것이기에 영화로운 것입니다.

셋째로, 영화란 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0-11절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엡2:1)은 이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리셨습니다(첫 번째 부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몸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두 번째 부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이 몸(육체)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넷째로, 영화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5-6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음(중생)] 또 함께 일으키사(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가리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뤄진 일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이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될 것입니다(엡2:6). 그러면 하늘에 어디에 앉히게 될 것입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화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다섯 단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롬8:29),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한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조건 등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요일4:8, 16)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므로(19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엡1:4)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믿음, 선행 등등)가 우리에게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자 택하셨기에 우리가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이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세 번째 단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유효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기록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결코 아닙니다(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님).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롭다하신 자들을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칭의)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들을 구원하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엡2:5).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롬4:16).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된 것도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로 된 것입니다(엡2:6-7).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므로(10절)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7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목적은 누구든지 자랑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행위로 영화에 이른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1)

[로마서 8장 31-34절]

성경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그런즉”이란 접속사는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과 연결시켜줍니다. 여기서 앞에 말씀이란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1) 로마서 3:21-8:30, (2) 로마서 5:1-8:30, (3) 로마서 8:1-30, (4) 로마서 8:26-30. 제 의견은 “그런즉”이란 로마서 8장 29-30절 말씀과 연결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9-30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다섯 단계를 말씀합니다. 즉 (1) 하나님께 미리 아시고(사랑하시고), (2) 미리 정하신(택하신) 자들을 (3) 예수님을 믿도록(모시도록) 부르시고, (4) 의롭다하시고(칭의), (5)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고 말씀하였습니다(31절). 여기서 한국 성경에는 “이 일”이라고 단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 헬라어를 보면 복수로서 “이 일들”(these things)입니다. “이 일들”이란 로마서 8장 29-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다섯 단계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들”이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하시며, 영화롭게 하신 일들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다섯 단계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다섯 단계를 이미 이루셨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의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만일”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큰 확신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다섯 단계를 이루신다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하시며 영화롭게 하심을 100%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30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다섯 단계를 말했을 때 동사를 과거사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몸은 아직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늙어가고 있었고 또한 육체의 가시도 있었지만(고후12:7), 그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하셨기에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줄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님께서 ‘이미’(Already) 구원의 완성하셨고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Not-yet)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에 그 ‘이미’와 ‘아직도’ 사이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장차(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확신했습니다. 참고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보면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6:10,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사도 바울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그의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것과 죽은 것, 이 둘 사이에 끼여 있었을 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였습니다(21-25절).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길 원했습니다(20절). 사도 바울은 비록 아직 영화롭게 되지는 못했지만 영화롭게 될 줄 확신했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란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사 부르시고 의롭다하시며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31절). 실제로 악한 세력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하사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졸개들을 보내서 우리를 수시로 공격하되 세상 유혹을 통해서나, 우리 자신을 통해서나, 죄를 통해서나 등등 여러모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세력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심지어 큰 표적과 기사[“큰 기적과 놀라운 일”(현대인의 성경)]까지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우리들까지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며 공격하려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욘1:7).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벧전5:8).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구석구석까지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에 마귀 사탄도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롬8:31).

성경 스가랴 1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춧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스가랴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인데 여기서 그 “한 사람”이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섰고”라고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입니다(막16:19; 눅22:69; 골3:1; 히1:3; 10:12; 12:2). 왜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서 계셨는가 하면 그 이유는 사랑하는 스데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서 계셨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본 것은 우리를 위하시기에,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서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는 한 사람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뒤에는 붉은 말과 자춧빛 말과 백마가 있었는데(슌1:8) 그 말을 탄자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1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되 이 사자들(천사들)을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셔서 두루두루 우리를 살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택하시사 부르시고 의롭다하시고 영화롭게 한 우리를 위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가 더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택하시사 부르시고 의롭다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에 우리는 100% 영화롭게 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또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5장 8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을 받길 기원합니다(마25:21).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2)

[로마서 8장 31-34절]

성경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자기 아들”이란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계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슌1:8). 그가 본 환상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모습이었습니다[독생자가 서 계시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옴(8, 10, 11절)]. 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인데(막16:19; 눅22:69; 골3:1; 히1:3; 10:12; 12:2) 스테반은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행7:55).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스테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서 계셔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쫓개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2절 상반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어주신 일이 나옵니다(내 자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내어주는 일이기에 아깝지가 않을 것임). 성경 이사야 43장 3절을 보십시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현대인의 성경)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며 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룩한 자이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네 몸값으로 내어주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애굽과 구스(이디오피아)와 스바(넓은 의미로 구스와 같은 지역을 말함)를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속량물”이란 구원 받을 자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어주는 보상물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애굽인들을 대신하여 홍해 바다에 수장하므로(전멸시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4절을 보십시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현대인의 성경)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네 생명을 구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사람들(애굽인들, 구스와 스바 사람들)을 내어 주시므로(그들을 희생시키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 알 수 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말씀을 오직 독생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3:17);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17:5).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이들이신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시고”란 말씀의 뜻은 ‘내주다,’ ‘넘겨주다,’ ‘포기하여 버리다’는 의미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데 내 주셨다/넘겨주셨다/포기하여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므로(31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매우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데 내 주시되 지체함이 없이, 머뭇머뭇 거리지 않으시고 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므로 (forsaken by God)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forgiven by God).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창22:1-2). 그 때 아브라함은 머뭇머뭇 거리지 않고 즉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3-10절). 만일 그 때 아브라함이 머뭇머뭇 거렸던지 또는 아내 사라하고 의논하였던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9-10절). 그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잡는 일을 멈추게 하였습니다(11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12절).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약속의 씨)(롬9:8)인 줄 알았으면서도,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바 하늘의 셀 수 없는 못별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15:5)는 말씀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롬4:1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창22:2) 그를 아끼지 아니하고(12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10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대적자들 중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흥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민란이 일어날까봐 유월절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말자고 하고 미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눅22:1-2). 성경 누가복음 22장 3-5절을 보십시오: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런데 사탄이 가롯 유다를 시켜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또 다른 대적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환호하였습니다(마21:9). 그들은 그 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대적자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심문했는데 예수님에게 죽을죄를 3번이나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눅23:22). 또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을 알고(막15:10) 죄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6절)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사람의 동정심을 이용해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총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므로(11절)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15절). 성경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십시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자기 즐거움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결코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7-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총력을 다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이 되었고 하나님의 한도 안에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도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원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한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의 결과는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므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일에 대하여 이정도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롬8:31). 그 대적자의 공격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현대인의 성경)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졌는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신바 된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2:1)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합시다(고전15:57-58).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을 받을 기원합니다(마25:21).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3)

[로마서 8장 31-34절]

성경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내주신 이”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31절).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신33:27; 사40:28; 롬16:26), 어디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요(사57:15; 렘23:24),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창28:3; 수22:22; 욥8:3, 5; 시50:1; 사 9:6; 겔10:5; 계11:17; 15:3; 16:7, 14; 19:6, 15; 21:22),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요일4:8, 16).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아들”이란 독생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지난 주에 묵상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에 있어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창22:1-2),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16:16).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22:1)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을 개역 한글판(1956년)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1998년)으로 보면 “그 외아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독생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자신이 매우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창22:9-10).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롬 8:32).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씨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또는 ‘그 안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말미암아”라고도 말할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안에서/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시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모든 신령한 복”[“모든 영적인 복”(현대인의 성경)]으로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신령한 복중에 몇 가지를 에베소서 1장4절부터 말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로 말씀한다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는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택하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다 또는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구원의 5단계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한다면,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란 “모든 신령한 복”(엡1:3)으로서 그 모든 신령한 복에는 구원의 5단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5단계란 (1) 하나님이 미리 아심/사랑하심, (2)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심/택하심, (3) 하나님께서 부르심, (4)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5)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을 말합니다(롬8:29-30).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생각할 때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부르심도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 전부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영원 전부터 계획을 다 세우신 것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5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 또는 창세전

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셨음/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개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신 것/사랑하신 것과 정하신 것/택하신 것도 각각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각각 개별적으로 의롭다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심도 각각 개별적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사 의롭다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롬8:31).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2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을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로마서 5장 6, 8, 10절에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연약해서 구원 받음에 있어서, 천국감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보좌에 앉음에 있어서 조금도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결코 구원이란 믿음(은혜) 더하기 행위(선행)이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2)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로울 때 그리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의(righteousness)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totally depraved)한 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공로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므로 하나님의 의(the righteousness of God)가 우리에게 전가(imputed)된 것입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죽게 하시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던 관계를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선행)으로 화목케 될 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원수 된 관

계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므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등등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사 그 구원의 5단계를 이루어 나아가시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8:32)을 개역개정판(1998년)으로 보면 그냥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한글판(1956년)을 보면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다른 점은 “은사로”라는 단어가 개역한글판에는 있지만 개역개정판에는 없습니다. 원어 헬라어를 보면 ‘xarizomai’라는 단어로써 한국어로는 ‘은사로 주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원어 헬라어의 번역을 개역한글판이 “은사로”라고 제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은사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 하나님의 은사(헬라어로 ‘xarisma’)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 에베소서 2장 4-5, 8-9절을 보십시오: “금홍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엡2:5, 8)요 은사(롬6:23; 8:32)이지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엡2:8)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9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사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5단계, 즉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엡 2:8, 9).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롬8:32).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요3:16)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은사로(롬8:32)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고전15:57-58).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4)

[로마서 8장 31-34절]

성경 로마서 8장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 여기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생각할 때 언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성경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있기 전인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입니다(롬8:29).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34절). 그 뿐만 아니라 그 분은 승천하시사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셔서 (막16:19; 히10:12)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롬8:34).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합니다[새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심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4절 가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 합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창세전에)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려면 동생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미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교제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고발하겠습니까?(33절)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게 하셨는데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대적하고 송사/고발/고소하고 송사합니다. 성경 스가랴 3장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 4번째 환상에는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고발하는 장면입니다(1절).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한 이유는 그는 대제사장이지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2절)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3절).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사탄을 거둬 책망하시고(2절)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4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사탄이 어떻게 그를 송사/고발/고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1-2절). 그들의 고발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였습니다(2절).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심문했지만 “죄가 없도다”(4절),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14절),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22절)[헤롯도 예수님께서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고 말했음(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23절). 그 결과 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고후5:21)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미리 사랑하신 우리들)(롬8:29), 미리 정하신 그들(창세전에 선택하신 우리들)(30절)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바 되어(고후5:21)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현대인의

성경) “피 묻은 옷”]으로 말미암아(계19:13)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슥3:3-4) 우리에게 흰옷(계7:13) 또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19:8, 14)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롬8:32) 우리를 미리 아시고(사랑하시고)(29절),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택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30절)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33절). 결코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서 우리 대신 고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닮게 되었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는데 감히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5)

[로마서 8장 31-34절]

성경 로마서 8장 33-3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세계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닮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29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동생이라)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히2:10-13).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고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스가랴 3장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했습니다. 대제사장인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3절) 사탄은 그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 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사탄을 거둬 책망하셨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2절). 그 이유는 하나님께 택하셨는데 감히 사탄이 고발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사탄을 엄하게 책망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다 사하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스가랴 3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는데 어떻게 사탄이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사탄을 책망하신 것이며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하셨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2:17).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롬5:10).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창3:8-9).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9절)고 말씀하신 것, 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로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것을 여기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요19:30)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을 입히려고 하면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주로 양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동물로 식물을 주시지 않으시고 초목으로 식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이 양이 죽는 것과 같이 너희도 죽는다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창5:5). 또한 짐승을 잡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가죽은 옷으로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이것은 속제 재물과 화목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5-26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33하-34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사 미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하셨는데(롬3:25-26; 8:30) 누가 감히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셨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의롭다하신 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를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3절 하반절-3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30절). 성경 스가랴 3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와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되 정결한 관 또는 깨끗한 관 또는 영광스러운 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때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정결한 옷, 깨끗한 옷,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하신 이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5-6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다 이기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사 모두가 다 그 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시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6)

[로마서 8장 31-34절]

지난주에 로마서 8장 33절 하반절에서 34절 상반절인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란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는 어느 누구도 결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11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3절)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4-5절).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0-11절). 예수님께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감히 누가 그 여자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의롭다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롬8:33하-34상) 결코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중의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만 믿어도 넉넉히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묵상하고 다음 주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내가 전한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2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3-4절에서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4절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대로”(2번 나옴)란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십시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방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예언의 말씀에 중요한 점은 나무(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35, 3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메시아)께서 나무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신명기 21장 23절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외쳤던 이유(요19:6)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마26:65; 참고: 요10:33, 36)을 하였고 또한 성전 모독(요2:19) 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경 시편 22편 16절을 보십시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실 것은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5장 24-25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시편 22편 16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사53:5).

성경 스가랴 12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 찔리실 것은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십시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22편 7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쭈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 예언의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욕하고 입술을 비쭈거리며 머리를 흔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39-42절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말씀은 시편 22편 7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22편 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어 내 하나님이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당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십시오: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시편 22편 1편의 예언의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 받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8절을 보십시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서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란 말씀은

죽으심을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메시아)가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8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합니다.

성경 시편 34편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6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될 것이라는 예언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고전15:3)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5-6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실 것이라(고전15:4)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9절을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57-60절을 보십시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부자 요셉의 새 무덤에 넣은바 되었으므로 부자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 죽으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므로(고전15:3)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7)

[로마서 8장 31-34절]

성경 로마서 8장 3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절 후반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6편 10-11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 주셨으니 주가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으로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절 후반절에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는 창세기 22장 4절에 “제 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사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2절)는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고전15:3-4)의 예언을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십시오: “그(아브라함)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 마태복음 12장 38-40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서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 자신도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나 1장 17절과 2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차례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은 예언(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십시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성경 마태복음 17장 23절을 보십시오: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성경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금요일에 장사되셨다가,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 계셨고, 그 다음 날 3일째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셨지만 그 두 제자들은 그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습니다(눅24:13-16).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20-23절). 그들은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27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그 두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오늘까지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름. 예수님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나사로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살다가 다시 죽었음). 성경에 승천한 사람은 있습니다(예를 들어, 에녹과 엘리야). 그러나 한 사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여러모로 증거하셨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십시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보이신 많은 중(예를 들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기록돼 있지 않음)에 6개만 기록돼 있습니다: (1) “게바”(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상에서 육안으로 적어도 5번 이상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닙니다. (2) 열두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3) 500명 형제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4)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5)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6)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성도들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때까지 살아 있는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고전15:58).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8)

[로마서 8장 31-34절]

성경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죽으실 뿐 아니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3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고전15:3). 또한 여기서 “다시 살아나신 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부활)을 말씀합니다(롬8:3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고전15:4).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떼레야 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한 증거하듯이 똑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한 증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롬8:34)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고후5:18).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신 후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승천하셨습니다)(행 1:3, 9).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심/앉아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앉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란 비유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우편 또는 하나님 오른편이란 권세 또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또는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 또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모든 권세 또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성경은 하늘의 모든 영물들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21-22절을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다시 살리시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8:34).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그리스도”란 기름을 부었다는 뜻으로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지자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은 2가지 중요한 책임을 말씀합니다:

(1) 첫째 책임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란 즐거운 마음으로 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라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 둘째 책임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능력과 권능을 비유로 말씀한 것임)에서 간구하시니 이 얼마나 힘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는 능력이 있어서 응답되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25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롬8:30).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엡2:6,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롬8:31)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

심은 반드시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견
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합니다(고전
15:5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
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십
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시되 성경대로 죽으
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필요를
다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
우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롬8:26-27).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되 성경대로 간구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
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9)

[로마서 8장 35-39절]

성경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우리”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한 3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우리”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가리킵니다(롬8:33).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1장 4-5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2) “우리”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들을 가리킵니다(롬8:33).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의롭다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시고 대우해 주십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하신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3) “우리”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간구하시는 자들을 가리킵니다(롬8:34).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롬8:35).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 1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18절)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시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22장 20-21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속히 오시는 것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십시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에게로 영접하여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 교회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계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계시록 21:1-2)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19:9).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득 찬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목상할 수가 없고 로마서 8장 34절만 목상하고자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부활)과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엡3:19).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찬송가 304장 3절과 후렴 가사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라고 말씀을 시작하였는데 여기서 “누가”란 7가지를 가리킵니다: (1) “환난”(롬8:35): 로마 시대 때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트리볼룸’(타작기)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도리깨’라고 콩이나 보리 등 고식의 낱알을 떠는 데 쓰는 농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타작기로 곡식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내리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환난”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많이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고 돌아오면서 안디옥 교회에 들려 제자들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하). (2) “곤고”(롬8:35): 여기서 “곤고”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3) “박해”(롬8:35): 여기서 “박해”란 다시 말하면 “핍박”을 말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4) “기근”(롬8:35): 여기서 “기근”이란 굶주림 또는 배고픔을 말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를 받게 되면 굶주리고 배고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4) “적신”(롬8:35): 여기서 “적신”이란 핍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적신으로 못 박하셨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적신으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5) “위험”(롬8:35): 사도 바울은 위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보십시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여러 종류의 위험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여러 종류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6) “칼”(롬8:35): 여기서 “칼”이란 긴 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긴 칼이란 사람의 목을 베는데 쓰이는 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칼”이란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칼로 죽임(순교)을 당한 사도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행12:1-2).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사 의롭다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33-34절). 그러므로 이 7가지[“누가”(35절)]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10년이 못되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네로 황제에게 이 7가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음). 이 시대를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환난이 이를 것입니다. 언제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요16:33하).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승리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10)

[로마서 8장 35-39절]

성경 로마서 8장 36-3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기록된바”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시편 44편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롬8:36)에서 “우리”란 문맥상 3가지를 가리킵니다: (1)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33절), (2)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들(33절), 그리고 (3)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자들(34절). 사도 바울은 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여기서 “종일”이란 하루 종일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일평생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옥중서신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살고 있는 가운데서(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음)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여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롬8:36)란 말씀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막8:35),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란 말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되 자기를 부인하고(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롬8:36)라고 말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죽임의 위험을 당하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하였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35절)같은 죽음의 위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험은 그들로 하여금 마치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욥이란 인물이 마치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롬8:36)라고 말했는데 양을 키우는 목적은 도살장에 끌고 가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현대인의 성경)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사53:7).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한 것을 보면(롬8:36) 사도 바울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종일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었고, 그랬기에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롬8:36)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9, 11-13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사형장의 죄수들처럼 제일 천한 자리에 세우셔서 …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생활비를 위해 수고하며 손수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욕을 얻어먹어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달래니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27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세 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번은 돌에 맞았으며 세 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주리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혈벗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자신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었지만(롬 8:36, 현대인의 성경)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8:37). 그는 그들에게 비록 “우리”(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같은(35절) “죽음의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36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37절).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되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또는 “거뜰히”(현대인의 성경) 이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강히 고발하겠습니까?(롬8:33)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34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35절) “환난”입니까?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까?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뜰히 이깁니다(37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57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쓰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11)

[로마서 8장 35-39절]

성경 로마서 8장 38-39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국 성경에는 38절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면”(γὰρ)(영어: For)라는 접속사가 없지만 원어 헬라어를 보면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3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한 말씀과 38-39절에서 말하는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에(37절) 그는 ‘내가 확신한다’(38절)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같은(35절) 죽음의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36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37절) 그것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또는 거뜰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요16:33).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확신하노니”(롬8:38)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확신하노니”란 동사는 수동태이면서 완료형으로서 “내가 이미 확신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고백했을 때 그 확신은 자기가 확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셨기에 “내가 이미 확신을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확신을 주셨을까요? 성령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울을

해방하였으므로(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바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므로(1절)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바울 안에 계시고 그를 지배하시므로(9절, 현대인의 성경)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인도하시므로(14절) 그에게 확신을 주셨고 또한 성령님이 친히 바울의 영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므로(16절)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바울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되(26절)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므로(27절)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26-37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하면서 38-39절에서 결론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확신을 한 것입니까? 그의 확신의 정도/강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 예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59-6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자니라”는 말씀은 스테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는 의미로서 비록 그의 육체는 “장사”하였지만(8:2)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테반은 죽기 전에 자신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은 100% 확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100%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줄 확신했습니다(물론 그 중에는 주님 안에서 이미 자는 자인 스테반 집사도 포함돼 있음). 또한 그는 그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을 확신했습니다(그들이 몸이 부활할 것임)(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죽은 사도 바울도 스테반 집사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리고 오실 것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같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빌3:21, 현대인의 성경)](참고: 고전 15:51-53).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살전4:16) 그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된 후인 “그 후에”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17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영혼과 연합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홀연히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살아 있는 성도들로서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로마서 편지를 쓸 당시에는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아 있었기에).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우리”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창세 전에 사랑하신 자들)이요(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택하신 자들)이요, 부르신 그들이요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이요 영화롭게 하신 자들을 가리킵니다(30절). 사도 바울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39절)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5:3).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되(고전15:58, 현대인의 성경) 특히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전도하며 선교합니다. 우리 모두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하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이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정죄에 이르러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도 죽어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여 꺼지지 않는 불 못인 지옥에서 죽을 수도 없이 영원히 살 수 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아들이신 독생 성자 예수님을 속제 제물과 화목 제물로 삼으사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시되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시요 유월절 어린양이신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인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면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하며 영생 복락을 충분히 그리고 충만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의”(justification)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칭의”란 법정인 용어로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유죄한 자인 우리를 아무 죄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릴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의롭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아가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영광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 우

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요 또한 영원한 생명이신 성자 예수님과 사귄(교제)을 누리므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 계명인 주님의 이중계명대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므로 이 땅에서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천국 생활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파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부록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로마서 3장 23-24절]

성경 로마서 3장 23-2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로마서 1장 19-3장 8절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이방 사람들(1:19-32), (2)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2:1-16), (3) 유대인들(2:17-3:8). 결론적으로 성경은 로마서 3장 9-18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즉 이방인 사람들이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범함 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방 사람들이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었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도 없었기에 복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되”(1:21)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19-20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변명)할 수가 없습니다(20절).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 로마서 1장 21,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 썩어지지는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방인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자

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26-27절). 그들은 모든 불의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29-31절). 성경 로마서 1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둘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범한 죄를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 중에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좋은 예가 누가복음 18장 9-14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인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11-12절). 이 바리새인은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피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라고 간구했습니다(13절).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14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 로마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마지막 셋째로, 유대인들이 범한 죄를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약 40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만 이방인이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범한 죄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롬 2:23). 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

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을 했습니다(21-22절).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유대인들 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롬3:9ff.). 성경 로마서 3장 9-10, 12절을 보십시오: “...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23절).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필요한 것입니다(3:24).

성경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망하면 전쟁 포로가 됩니다. 그 전쟁 포로들 중에 쓸만한 사람을 사서 자유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모든 사람들(이방인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사탄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속량(자유케)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 사복음서(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를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강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5장 25, 33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오전 9시경이었다. ...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이더니 무려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였습니다. 34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까지 받으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자 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37절). 43-45절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

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예수의 신체’라고 마가는 말했을 텐데 이미 죽으셨기에 “예수의 시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빌라도 총독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았을 것이므로 십자가에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로 연약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적어도 이들은 사는 줄 알았고, 건강한 사람이면 1주일이든 더 오래 사는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6시간 전인 오전 9시 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미 죽으셨으므로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니까 빌라도 총독은 이상이 여겼습니다(44절). 그래서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서야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주었습니다(45절). 성경 요한복음 19장 33-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로마서 4장 17-25절]

성경 로마서 4장 23-24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 “...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7, 19절을 보십시오: “...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창17:1)(사라는 89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6절). 그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하고 중얼거렸습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아브라함이 75세 때(창12:4)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2절). 아브라함이 85세 때[75세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12:1)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지 10년이 지난 후(16:3, 현대인의 성경)] 사래가 출산하지 못하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 자기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자고 했습니다(1-4절). 아브라함은 사래의 말대로 하여 그의 나이 86세 때(16절) 이스마엘을 낳습니다(16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창17:1)(사라는 89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래는 90세 때(17절; 롬4:19)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래의 태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롬4:19).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19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20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18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래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에(창17:11)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12, 13절). 믿음으로 사래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히11:11). 하나님께서 사래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므로 결국에는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창21:1-3).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현대인의 성경) “...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출3:14).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창1장, 천지창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롬4:17, 18).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21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22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25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사 우리를 의롭다하심을 믿습니다(25절).

넷째로,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롬8:26).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27절).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성화)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살후2:13; 벰후1:2). 우리는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롬15:13).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믿습니다(고전2:13).

우리는 재난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딤후2:15,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고후13:5).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창22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라도 시험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음을 철저하게 깨달아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새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 의지하고 믿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고후13:5).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나타내)셨듯이(롬5:8)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나타내)야 합니다(고후13:5).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롬5:18).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해야 합니다(21절). 우리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19-20절).

선교하는 승리장로교회

[로마서 1장 14-17절]

성경에 소문난 교회가 나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 21-22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안디옥 사람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 다음에 로마 교회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소문나기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빛진 자 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 다 내가 빛진 자라.” 우리는 주님께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빛진 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중국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빛진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십시오: “...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 승리장로교회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빛진 자입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계3:8). 우리는 빛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 이 복음은 ...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창1:3).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게합니다(렘5:14).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습니다(렘23:29).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롬1:16). 우리 모두가 다 지옥을 가야하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16절)들인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자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므로 가능합니다(17절).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8:33).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므로 말입니다(1:17). 예수님을 닮아가므로 말입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7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영원한 생명)(천국)을 얻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 로마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으로 갈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 5, 6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경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살리셨고, 이미 하늘에 앉히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확신을 가지고) 두려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누리므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두려워 합니다. 즉, 우리는 영생 복락을 두려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여러모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소문나게 하시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